朝鮮日報
夕刊
十四日(月)
本紙朝夕刊十二面

今田部隊淇縣入城
坂西部隊長桓占領
工藤部隊八千敵軍을擊破
京漢戰線方面의戰果

【彰德十三日發同盟】京漢線을 破竹之勢로써 南進中인 今田戰車隊는 十三日午前十一時淇縣城에 達하야 北門으로 入城하엿는데 이에 繼續하야 步兵部隊도 入城을 마치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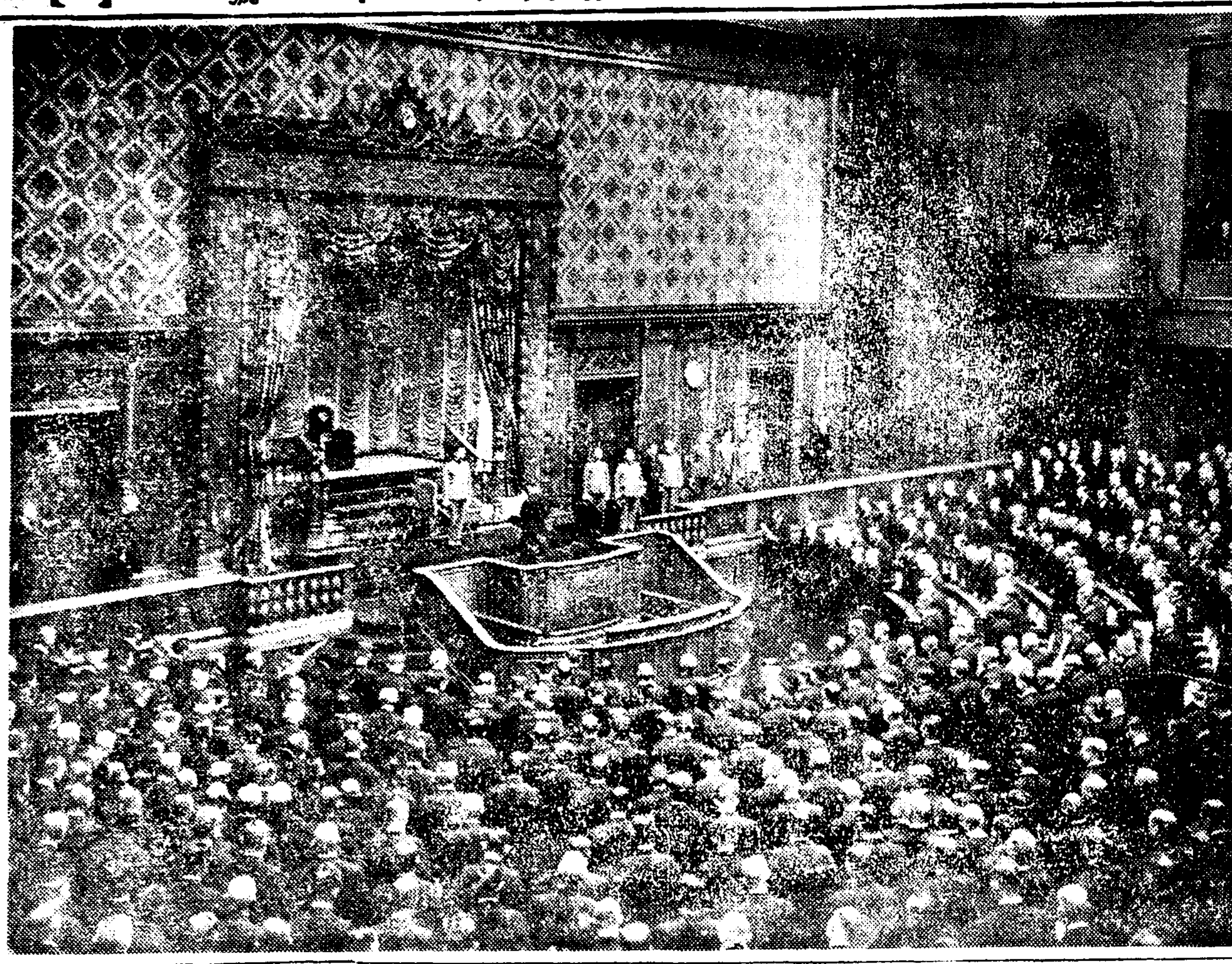
【彰德十三日發同盟】京漢線東方의 敵을 南方으로 向하야 壓迫하면서 濬陽으로부터 急進하고잇든 坂西部隊는 十三日 午前十一時 長桓을 占領하고 入城하엿는데 敵은 遺棄死體一千餘를남기고 潰走하엿다 長桓은 濬陽의 南方十八里 黃河의西方二里地點에 位置한 要衝이다

【彰德十三日發同盟】工藤部隊는 十一日午前十時武安(邯鄲西方五里의山岳地帶)에서 約八千의 敵에遭遇되여 이에 猛擊을加하얏는데 敵은 峻嶮한 山岳地에 堅固한 陣地를 構築하고 頑强히 抵抗을 試하야 激戰數時間에 達하얏스나 我軍의 勇猛果敢한突擊에 抵抗치못하고 敵은 同日夕刻頃 多數한 死體를 遺棄하고 山中기피 潰走하엿다 어 戰鬪에서 我軍은 十數名의 負傷者를내엇다

【北京十三日發同盟】十三日午後四時 軍司令部發表 京漢線方面의 我軍은 十一日湯陰附近의 敵陣地를 北東西의 三方面으로부터 包圍하야 敵을混亂에 陷入케하고 十二日 朝來 殘敵을 追擊하야 同日正午頃에는 淇水線에 進出하고 十三日에는 또 南方으로 向하야 追擊續行中이다 十一、十二兩日의 戰鬪의 結果 敵의 遺棄死體는 二千 我軍의 損害戰死傷二百이다

南進部隊平遼入城
全軍의士氣去益衝天

【龍山師團司令部十四日午後二時發表】十一日 南方으로向하야行動을開始한 鈴木 森本 岡崎 南部等各部隊는 서로協力하야 閻錫山麾下五千名의 兵力으로써死守하고잇는 平遼城을 十二日午後四時에 擊破하고 堂堂히入城하야 目下殘敵을 掃蕩하는中이다 敵의遺棄死體數百、捕虜數百에 達하나 我軍은 戰死四名 負傷者十數名이라는 記錄的好結果를收하엿다 全軍의意氣는 衝天할만하다


貴族院에서 擧行한 憲法發布五十年記念式典

獨墺兩巨頭의 會見經緯

【伯林十二日發同盟】十二베르히테스가덴山莊에서行한 히틀러總統과 墺太利首相 슈슈니크博士와의會見은 全然突發의것으로 伯林外交界는勿論 獨逸官僚當局도 놀랏다는것이 眞相인듯하다 在伯林墺太利大使館附武官의 見解에依하면 히틀러總統은 今回의會見의結果 獨逸은 墺太利에 對하야 如何한要求를가젓는가하는疑惑가 急速히 具體化하야 又會리니首相及 슈슈니크博士가 이를 痛感케 되엿을뿐 아니라 히틀러 總統自身도 獨逸의 政策을 率直히 闡明할 時機가到來하엿다고 생각하엿 如斯한情勢가 히틀러 슈슈니크會見으로된것이라고한다

對支援助目的한 反日同盟說否定
蘇大使記者團에言明

【華府十二日發同盟】對支援助에關한 蘇聯政府의 國際的動向은 頗히 注目되고잇는데 蘇聯外交界의 重鎭트로야놉스키駐米大使는 十二日華府大使館에서 新聞記者團을 引見하고 對支問題에 關하야 英、米、蘇三國政府가共同措置를 取할때에는 支那를 日本의 侵略으로부터 救할수잇슬것이다라고 說하엿다 「右는 英米蘇三國의反日同盟을 提唱하는것이아니냐」하는質問에對하야 解解하야가로대

余의 意向을 反日同盟을 指示하는것이라고 解釋하여서는 안된다 余는 英米兩國政府에對하야 如何한種類의 同盟締結을 提議할意思는업다 왜그러냐하면 蘇聯政府는 自國의 擁護와 安全에對하야 他國과同盟을 締結할必要는 업고 自力으로 防衛할수잇스므로써이다 (트로야놉스키大使談)

國家總動員法案은
憲法條項에背馳!
政民兩黨의反對論據

【東京電話同盟】

政友會 에서는 十四日午前九時부터 芝三緣亭에 院內外總務會를開催하고 近近衆議院에 提出될 國家總動員法案의 取扱에 對하야 事前協議를 遂하게되엿는데 首腦部間에서는 그內容이 非立憲的이라고 하야 目下反對論이 有力한데 最近本法案은 憲法第三十一條에 背反하는것이라는形式的議論이 擡頭함에 이르러 空氣는 惡化하여젓다고 傳하야 그趨移가 注目된다 即憲法第三十一條의 解釋으로서

一、戰事又는 國家事變의境遇에 잇서 臣民의 權利義務에 制限改廢를加함을 得함은 天皇의 大權行爲인것
一、本法에 國家事變이라고함은 國內事變의 意味인것이 憲法義解其他에 依하야 明瞭한것
一、臣民의 權利義務에 制限改廢를加할 境遇에는 戰時만에 限할것
一、戰時에잇서 大權이發動되여도 可能하게될事項을 法律에規定하야 그行使를 行政官에委任함은 違憲의 甚한者이다

라고 하는것이 政友會의反對論據이다

民政黨 은 國家總動員法案에 對하야 目下首腦部間에서 愼重考究하는 同時에 有志議員間에서도 그重大性에 鑑하야 屢屢意見交換을 行하고잇는데 要컨대 同黨內의 反對論의 要點은 依然히 憲法上의 問題에 關聯한것으로 即

一、憲法第二章 第二十二條에잇서서 儼然히 規定된 人民의 權利自由에 關한것을 모두勅令에 讓하야서 白紙委任狀을 政府에 委任하려는것으로 默認할수업다
二、將來의 戰時又는 刻下의事變에 잇서서 緊急勅令으로 하더라도 그手續上 넘우나 遲延될 境遇에는 憲法第二章第三十一條에 規定된 非常大權의 發動에 依하야 비로소人民의 權利義務에 改廢를 加함이 當然하다
三、即帝國憲法은 如何한 境遇를 當하더라도 綿密한 規定이 整備되엿슴에 不拘하고 이에依據하지안코 立法形式을 그릇하야 國民의 廣汎한 私有財産에關한 頗히 廣範圍의統制를 겨우三十個條의勅令에 讓함은 畢竟憲法의 運用에 牴觸되는것이다
四、따라 政府가 現下非常時局에 鑑하야 必要하다고하는本案을 提出한以上 적어도 勅令案의 內容을 明示하는同時에 나아가 勅令의 委任事項을 될수잇는대로 法文化시킬 必要가잇다

라는 意見이 有力하다 또 內容에 잇서서는 特히 言論 集會 會社 輸出入貿易에 關한無制限한 干涉統制等에對하야 多大한 關心을抱懷하고잇는듯함으로 近近 法案의提出을 보는境遇에는 相當한 波亂은 免치못할것인데 黨首腦部는 時局에鑑하야 政府와 正面衝突을 惹起할수가는것은 極力避하고 黨議를 統一하야 本案解決에 向하야 善處하고저 苦慮하고잇는 模樣임으로 結局問題의 諸點에 對하야 相當한 修正을加하고 또 政府의責任잇는 言質을 어든後 本案은 通過하는것이 아닌가觀測된다

通報要求의主謀는
英國政府로判明

【東京發電】英米佛三國政府의建艦通報要求의 眞意는 建艦競爭을 開始하야써 日本을 壓迫하야 日支紛爭에 干涉하려는一方 帝國의 拒否로써 自國이먼저 第二次倫敦條約을 破棄하고 制限外의 大主力艦을 建造하는口實로하려는것이라고 觀測되더니 事實에잇서 豫想한바와가티 最近某處着情勢에 依하면 어떠한策動의 主役이 果然 英國인것이 判明되엇다 即 今次事變에잇서 支那를 援助하든 英國은 支那의 敗戰에依하야 後退한 自國의極東勢力을 挽回하려 苦慮한結果 一時레이디·빼드號事件을 好機로하얏스나 어는 戰術上 또는 國際關係上 不可能하게되엿스므로 日本을 牽制하려는 策을 考慮하야 極東에 艦隊를 派遣하야 他術策에對하야 熟考한結果 歐洲에잇서서 獨伊海軍의 擴張에 對備하는一方 가만히안저잇스면서 帝國을壓迫하려면 大主力艦을 開始할만가지못하다고하고 이에 國際的壓力을 加하기 爲하야 二月二日 倫敦에서 米國海軍作戰部作戰課長 잉가솔大佐 其他 米佛海軍關係者와 會議한때 米佛兩國에 對하야 三國共同通牒으로 日本에 建艦內容發表를 要求하자는것을 提議한 經緯가 判明되엇다 그리고 이提議에 對하야 米國政府는 三國共同動作은 不穩當하다고하야 各其 單獨으로 通牒할것을 主張하고 佛國도 亦是同意見이엿스므로 英國案은 마침내 水泡에 歸하고 結局 通牒三國이個別的으로 對日通牒을하게된것이다 또 英政府는이보다먼저 一月下旬頃 日伊兩國에 對한 地理的弱點을 補하기爲하야 佛國에 對하야 軍需工業技術一般을 供給하는 代價으로 佛領北阿弗利加及 印度支那의 海空軍根據地貸與를 要求하엿스나 佛國은 極東의紛爭에 捲入될것을 念慮하고 이 要求를 拒否하엿다고傳하는等 自重中立的態度를 持하는 米佛兩國을 極東問題에 끌러드리려하는 英國의 暗躍은 漸次露骨化하여저서 極히注目할 價値가잇다

文部省의對北支
文敎指導助成策

【東京電話同盟】文部省에서는 伊藤普通學務局庶務課長以下 職員及 矢部東京帝大法學部助教授等 官立大學敎授를 北支에派遣하야 學校敎育狀態를 視察시키엿든바 一行은 目見한實際情勢를 綜合하야 生育途上에잇는 北支에 日支提携하야 어떠한文敎制度를 樹立할가를愼重研究한結果 北京敎育界에 第一로指導援助할 人材를보낼必要를 痛感하고 圖書局編修課長 藤本萬治及 督學官主事橫山俊平兩氏를 選拔하야 現職에잇는대로 約半個年 豫定으로北京에 派遣駐在시키게되엿다

萬福麟軍一隊
土民軍이擊退

【彰德十三日發同盟】十三日午後一時頃彰德北方郊外의 袁世凱墓地附近을 一名의支那兵인듯한男子가 通行하는것을 我軍步哨가 發見하고 取調한바 이支那兵은去月我軍에 歸順한河南省土民軍王金亭의部下인것이判明되엿다 土民軍은 去十日 我軍의進擊開始以來 黃山部隊에協力하야 同部隊의 右翼援護部隊로서 前進하고잇든것인데 同兵士가말하는바에依하면 十二日朝 水冶驛(彰德西方六里)에서 萬福麟軍의 一部隊에 遭遇되여 交戰二時間後 이를南方으로 向하야 擊退한것으로 王隊長의命을밧고 後方과 連絡키爲하야 歸來한것이다

淮河渡河戰에
敵軍의損害甚大

【鳳陽十二日發同盟】○○部隊의發表에依하면 淮河渡河戰에서 敵에게 與한損害는如左하다

添田部隊

敵의遺棄死體	五〇〇
小銃	一〇〇
체코機關銃	二八
迫擊砲	三

田代部隊

敵의遺棄死體	一、五〇〇
捕虜	一五〇
小銃	三六〇
체코機關銃	一〇七
重機關銃	八
迫擊砲	一
靑龍刀	八

彈藥多數 鹵獲하엿다

貴族院本會議

【東京電話同盟】十四日貴族院本會議는 午前十時六分振鈴 諸般의 報告가잇슨後 佐佐木副議長으로부터 新議員大河內正敏子와有田八郎氏를 紹介하고 同十五分開會 賀屋藏相登壇하야 衆議院에서와 同樣의財政演說을 二十六分間에 亘하야 行한다음 日程으로 드러가

一、商業組合法中改正法律案(政府提出)

을上程하고 吉野商相으로부터提案理由를 說明하고 質疑없이九名의 委員에附託하고 다음

一、商法中改正法律案
一、同施行法案
一、有限會社法案(以上政府提出)

의三案을 一括上程 委員長大限信常侯로부터 委員會의 經過에對하야 報告、採決에드러가商法中改正法律案 同施行法案은 委員長의報告대로可決 有限會社法案에對하야는 反對討論의 通告가잇서 採決을 延期하고 무記名投票로써 委員長報告대로可決

一、日滿司法事務共助法案(政府提出)

藤田委員長報告에 委員長으로부터 報告가잇슨後 可決 다음 委員會의 經過와 結果를報告하얏는데 어떠한 修正案을 求하야 牧野法相登壇 委員長으로부터 報告된 第六條의 修正은 原案의主旨를 一層明瞭케하는것임으로 政府는 이에贊意를 表明한다

고說하고 富小路隆直子로부터委員會의 修正에 對하야 反對意見이 잇섯고 採決한結果 委員長報告대로可決、다음貴族院議員의財政演說에 對한 質疑日程을 追加하야 通告順에 依하야 公正會의 阪谷芳郞男登壇 阪谷男의 質問에對하야 大谷拓相의 答辯이잇섯고 同十一時三十七分散會

蚌埠에敵機襲來

【鳳陽十二日發同盟】十二日午前十一時三十五分 敵爆擊機六機는 蚌埠에飛來하야 市街南端 伊佛兩國人住宅에 爆彈十一個를 投下한結果 伊太利人數名이 負傷하엿다 詳細는 目下調査中이다

時事解說
합스부륵家

합스부륵家는 大戰前 오스트리아帝國을 가르치는 것으로 또 近世 歐洲에 잇서서 最古의 家系를 가지고 잇스니 同家는 九五二年 [illegible]에게 [illegible]된 마물의 옷트二世에게 [illegible] 군트람伯의 後裔다。同伯의 아들이 네사람인中에서 스트라스부르司正이 [illegible] 城 합스부륵을 [illegible]햇고 그 다음으로 그의 아우 라드보 ―도 가 합스부륵家라고 일컷기 시작한 것인데 라드보 ―도의 손자 옷토―二世가 一○九○年 비로소 합스부륵伯이 되고 다시 도 그後裔의 루돌프一世가 비로소 [illegible] 마물帝로 [illegible]되기에 이르럿든 것이다。

×

一三六五年 루돌프四世가 죽은 뒤 합스부륵家는 알벨트 [illegible]의 두 家系로 分家되고 一三八六年 레오폴드三世가 죽은뒤 레오폴家는 다시 티롤、스타이엘의 두 家系로 分家되야 온 中 스타이엘家의 막시밀리안五世(一四九三―一五一九)와 그 아들 칼五世(一五一九―一五五六)가 結婚政策을 가지고 스페인、헝가리等을 併合해서 합스부 륵家의 全盛時代를 이루엇다가 一七四○年 칼六世가 죽은 뒤 男系가 끈어지고 女 마리아·테레사가 로드링겐公과 結婚하야 그가 帝位를 繼承한以後 합스부륵·로드링겐家系이라고 불른다。

×

十九世紀初葉에 이르러 푸란스一世가 [illegible] 皇帝로 되어 오스트리아皇帝가 되얏고 世界大戰後 갈리아 一世가 오스트리아의 帝位조차 빼앗긴後 同家系는 帝位를 일헛스나 아즉도 오스트리아國內에는 復辟派의 勢力이 [illegible]지 못 할바 잇고 도 伊太利는 그 復辟을 은근히後援하야 왓다。그러나 獨逸은 獨墺合倂을 企圖함으로써 거기 反對하고 또 舊오스트리아帝國의 領土를 占有한 체코슬로바키아等 各國도 오스트리아帝王 復辟을 두려워 그로도한 거기 反對하야 왓다。

八面鋒

◇ 日用品特別物品稅의 制定으로 日用物價가 二割騰貴。

◇ 帽子、內服、洋襪으로부터 萬年筆、샵펜슬、스텍기、파라솔、성냥에 어르기까지 凡四十七種。

◇ 化粧品가트면 奢侈稅니까 有閑階級에나 增稅될지나、日用雜貨에까지 미치니 大衆의 生活에 重大한 影響。

◇ 게다가 豫算의 膨脹으로 一般物價의 騰貴는 不可避의 大勢。

◇ 都市人 特히 給料生活者를 爲하야 特別한 救濟策이 緊要。

◇ 流行性感冒 갈사록 猖獗。

◇ 게다가 日氣조차 不一하고 눈한번 안왓스니 流行어 一層猛烈。

◇ 昨夜來 白雪이 滿乾坤하얏스니 形勢가 多少 挫折될거나?

◇ 눈은 麥作에 조코、萬歲에 糧食이 되니、느진 感이 잇스나 안온것보다는 나흐렷。

조흔醬油 조흔家庭
マルキン醬油
마 루 킹
一器汁 一蔬饌도 世態를 따라서
小量으로 맛을 조케하는 マルキン 時代입니다
醬油의 良否鑑別을하실 時代가 왓습니다

惡性感冒熱に この一服!
實効散은快히제절로解熱케해서迅速히症狀을輕快히하고、中毒副作用이絶對로업는、婦人小兒의安心하고服用할수엿는理想的인 感氣藥입니다
定價 二十錢 三十錢 五十錢 一圓 三圓
全國藥店에잇슴
感氣解熱 特効藥
實効散
NO11

昨夜來의暴風雪로 各地電信電話杜絕

釜山、大阪、東京、群山、大田、江陵等地와 京城間通信에大支障

십삼일밤열시부터 경성을 중심으로 남지방일대에 밤새도록 폭풍설이 쏘다저 십사일 오전열시까지에 경성은 십록「센」치 사분이나 차엿는데 이눈으로 말미암아 경성부내의 전신 전화선의 고장도 상당히 만하거니와 기타 원거리지방과의 사이에 전신전화선의 고장도만하서 통신관계에 큰 혼란을이르켯다 체신국에서는 공사과원을 총동원 시켜서복구작업을하는중이다 십사일오전 열시반까지에 불통된 전화선은 일곱곳이며 전신선은 여섯곳이다 즉

▲전화선은 경성 리천(利川)사이와 경성 부산사이와 경성 대판사이와 경성 동경사이와 경성 충주(忠州)사이와 경성 군산(群山)사이와 경성 대전(大田)사이이고

▲전신선은 경성부산사이와 경성 동경사이와 경성 대판사이와 경성 강릉(江陵)사이와 경성 평창(平昌)사이와 경성 영월(寧越)사이 이다 이와가티 눈으로 말미암아 전화 전신의 고장이 생기게되엿스므로 말미암아 동경 대판의 시세를 빨리 알려고 초조하고잇는 명치정 주식취인소(株式取引所) 거리(街)일대에서도 만흔 혼란을 이르킨 모양이다

鐵道局電線도故障

—에도 십사일오전아홉시부터 십사일아츰까지 나린눈으로 말미암아 철도국전용전화선과 전신선엿스나 오전열시에 모두복구되엿다한다 즉 전화선은 룡산(龍山)대전(大田)사이의 삼사번선은 조치원(鳥致院) 신탄진(新灘津)사이의 송전선이절단되여 고장이생겻스며 룡산(龍山)순천(順天)사이에도 잠간동안불통되엿스며 전신선은 대전서 송정리(松汀里)사이와 순천사이와 군산(群山)사이와 룡산 목포(木浦)사이와 룡산순천사이의 각선이고장이생겻다한다

集團移民隊輸送 發程日字를發表

간도(間島)방면으로보내는 동척제이단이민의 수송일정은 다음과가티 총독부에서 결정하야십사일오전에 발표하얏다

◇第一回=二月二十日鐵原驛發同二十二日明月溝着 樺甸縣安圖縣에 定着 百四十二戶=六百六十九人(江原道分)

◇第二回=二月二十一日 永同驛發同二十三日大荒溝着 汪淸縣延吉縣에定着一百五六戶=七百七十九人(忠北分)

◇第三回=二月二十三日龍山驛發同二十五日明月溝着 安圖縣樺甸縣에定着一百五十七戶=七百六十二人(京畿、忠南分)

◆第四回=二月二十四日金泉驛發 延吉縣定着 一百三十二戶=七百五十一人(忠北、慶北分)

◆第五回=二月二十六日 大田驛發、同二十八日明月溝着、樺甸縣에定着、百六十三戶=七百七十八人(忠南分)

◆第六回=二月二十七日倭館驛發 同三十一日大荒溝着、汪淸縣定着 一百三十戶=七百七十六人(慶北分)

計八百八十戶=四千五百七十八人

안도현(安圖縣)연길현(延吉縣) 방면진단이민수송일정은 이상과 갓거니와 간도방면과 동변도(東邊道)방면의이민은 대개오는 이십일까지 그수송을 종료할예정이다

大望日에豊年雪 市內에積雪五寸

어제날세는 완연한 봄날 더니 급기여 간밤에 한바세로 제법 눈눈하게 까지하 눈이나리기 시작하야 십사일오전 열시까지에는 십록「센치」나(약오촌)이나 차엿다 이눈이 이번겨울들고 제일 만히온눈이다 봄눈이 만히 오고 적게오고에 보리농사가 잘되고 못되고가 달렷다는데 그동안 남조선 지방에서는 추위는심한데다가 눈이 안와서 금년보리농사가 말이아니라고들 하더니 이번 눈이 전조선적으로 왓다고하니 이때를 닐고루기틋지게 하는 고마운 서설(瑞雪)이다

◇하로사리눈사람◇

御下賜煙草 輸入에特典

전매국에서는 내지전매국과협의한결과 황족 또 왕공족으로부터 출정군인 또는 해외주둔군에게 하사하시는 은사연초를 배수(拜受)한자가 친족 친구들에게 나노어주기위하야 소포후편을 부친든지 또는 귀환(歸還)할때가지고 수입할경우에는수입제한에도 불구하고 목인키로되엿다한다

無子息을悲觀 自殺未遂女子

아들업는것을 서러워하야 자살하려든 중년여자가잇다―부내 죽첨정(竹添町)삼정목사백사십오번지 한정모(韓政模)의안해 박씨(朴氏)(三七)은 십이일오후구시쯤하야 자기방에서 양잿물을 만히마시고 고민하는것을 집안사람이 발견한후 그근처고려의원(高麗醫院)에 데려다가 응급치료를한결과 생명은 겨우건지게될모양인데 그는 음식점을 경영하야 겨우 생활을 계속하는터로 생활이 곤난한데다가 슬하에 딸하나가잇슬뿐으로 아들이업서서 항상 이를 비관하든나머지에 차라리 죽는것이 낫겟다고 생각하고 전기와가티염세자살을 하려든것이라한다

元山遞信管內 官設郵便所六個所

【元山】원산체신분장국(遞信分掌局)관내의 금년도중 개설할우편소및 우편소급소는 신설개소엿는데 그중신설개소는 이미설치를보앗고 남어지 既設局개소 중 오개소는 다음과가티 지난십일부로 개설할것이다

▲興(洪原)▲同北靑郡俗厚面 ... ▲城北茂山郡三社面 ... ▲同明川郡上古面 ... ▲咸南北靑郡 ... ▲三陟郡 ...

"떰불렁"으로越墻侵入 短刀로主婦脅迫

昨曉敦岩町에또强盜가出現

超스피―드로東大門署서逮捕

발생한 강도사건을 탐일에해결하야 (?)동대문서관내에는 십삼일새벽 또다시돈암정(敦岩町)에 단도강도사건이 발생하얏섯는데 동서원의 기민한활동으로진사일새벽에이 사건의진범인두명을 전부체포하야「스피―드」해결을지엇다 십삼일 오전세시쯤부내 돈암정(敦岩町)자번지 회신정(和信)에 근무하는 지정석(池廷錫)(三三)―현재여행중―의 집에 누군지방한모르는 삼십사오세가량의 장한이 침입하야 안방에서 자고잇든 지의처 김정순(金貞順)(三○)에게 단도를 겨누며「권(正租)관은 이백원이 잇슬터이니 내노하라」하며 금방찌를것처럼위협을하엿는데 김씨는 침착히「주인이지금려행중이되여서 돈이어되잇는지 모르겟다」하며 주머니속에잇든현금이원을 내주엇든바「이까짓것은일원이다 이백원을 내노히」이가튼문답이계속되는 동안 엽방에서자고잇든 식모가떠들어서 범인은 아무것도 엇지못하고 도망처버렷다한다

이보고가 동대문서에드러오기는 사건발생후 엿시간이나지난뒤인이날 정오조금지나서인데 동대문서에서는 시각을옴겨 현장에 달려가 피해자의 진술을 종합하여본결과 범인은 어진내부사정에 정통한자로 단정하고 부근거주자 이집에 출입하는자를 엄중히 수사를 하얏든바 십사일새벽에 이르러 돈암정사백오십번지 돈의정하는사람 신앙국(愼仁國)(?)과 가튼정삼십번지 지 역시 동거하는 강치덕(?)(?)을 체포하고 엄중한 취조를한결과 범행일체를 자백하얏다 신의집에서 단도 방한모까지나와 사건발생후 하룻조금지나 개가를 올리고 보서로 도라왓다한다 도한 이범인의 친어머니는 강이보조원이되여 신이그지의집에 침입하얏스며 강은범행당시 바게서망을보고 잇섯다한다(사진은 범인 우로부터 신양국과 강진덕)

「닷드선」이殺人

「닷드산」(小型自動車)에 치여 부상한 사람이 드듸여죽어버렷다 부내화원정(花園町)칠십번지 사는 신정(新町)모로리점 집꾼인 평산동길(平山藤吉)(六七)이란는 로인은 십이일오후 두시반에황금정삼정목이십오번지아페서 부내 숭인정(崇仁町)자백십삼번지 사는 장기석(張基晳)의 운전해가든「닷드산」에 바치여 어깨뼈와 갈비뼈와 허리가 부러젓든데 십삼일오전네시에 드듸어사망하엿다한다

이월사일 성북정(城北町)에

動員될四十萬勞働者 賃金引上을考慮

鑛山勞働者만卄萬名需要 現地施設도改備方針

산업년도 토목(土木)로동자와 광산(鑛山)로동자의 수급(需給)상황조사는 방금내무국사회과에서 진행중으로 금월말경에는조사집계가끗날모양인데 사회과당국의 개괄적 예비조사에 의하면 토목관계 로동자는 약사십만명으로 작년도에비하야 대차업슬모양이나 광산관계로동자는 금산증산계획에 의하야 작년보다 약십만을 더요구하게되여서 현재작업중의 십오만명에 합하야 무려이십오만명에 달할터이므로 공급을요하는 로동자는 약이십만에달할모양이다 그런데 이대량로동자의 수급에 관하야 사회과에서는 금월말경까지 조사집계를 마친후 삼월중순경부터는 그동원에 착수할터이다 그리고 금년의로동임금(賃金)은 물까등귀기타 제반사정에의하야 작년보다 약이할가량 인상하는동시에 로동장의 제반시설도 상당한 경비를 드려서 일신하게 할터인데 그예산은 총독부에서 추가예산으로 요구할터이다

恩赦減刑卅五名 假出獄者三百餘名

紀元佳節에聖恩입은囚人들

지난십일일 기원(紀元)가절, 제국헌법(憲法)발포오십주년기념일에 황공하옵게도 은사대조(恩赦大詔)를 환발하옵신에 의하야 조선내에서 이성은을 입은자는 감형 복권합하야 다수에달하는데 그중에 감형자는 총독부당국의 조사에의하야 재감자(在監者)십삼명 비재감자(非在監者)이십이명 합계삼십오명으로 판명되엇는데 그내용은다음과갓다

一、재감자(형무소)▲西大門 二人▲公州 二人▲咸興 二人▲淸津 一人▲大邱 一人▲光州 一人▲馬山支所 三人▲合計十三人

一、비재감자(검사국)(복심법원) 京城 三人▲平壤 一人▲大邱 二人(지방법원)▲京城 二人▲新義州 一人▲平壤 一人▲鐵原支廳 一人▲忠州支廳 一人▲北靑支廳 一人▲元山支廳 二人▲尙州支廳 一人▲馬山支廳 一人▲木浦支廳 一人▲井邑支廳 二人▲計二十二人

이상과가티 감형자수가 비교적 적은것은 칙령에의하야 죄명이 비상히한정되엇기때문이다

기원절과 헌법발포오십주년기념일에 은사대조를 환발하옵신데의하야 감형된인원수는 이상과가티거니와 이량대가절을 기회로 전조선 십사개형무소 삼개소년형무소 십일개소형무지소합계이십팔개형무소에서 성적우량한 죄수에한하야 가출옥(假出獄)을 허가한자가 삼백명에 달하는모양인데 이것은 물론 은사령에의한것은 아니나 기원절과헌법발포오십주년기념일 량대가절의 은택을 간접적으로 입은것이다 이것은 례년에도 기원절과 천장절을 당하면 각형무소에서 상당한 다수의 가출옥자를 허하야 온것이엇는데 이번에는 헌법발포오십주년 기념일을 겸하얏스므로 그와가티 그인원수가 다소증가된것이다

嚴俊源翁長逝

八十四歲의高齡으로

진명(進明)녀자고등보통학교 교장 엄준원(嚴俊源)옹은 로환중 신병으로 료양중 작십삼일오전 두시오분 시내내수정(內需町)자택에서 장서하엿다

씨는일즉이 한국관에올라 명치삼십삼년 구한국중추원의관으로 한성판윤(漢城判尹)군부협판(軍部協辦)부장참장(副將參將)등을 역임하고 명치사십년 진명녀학교교장으로 취임이래 로령을불고하고 녀자교육사업에 진력해오든분으로 향년이팔십사세라고한다(사진은엄씨)

魔의厚峙嶺서 自動車가墜落

【咸興】마의후치령(厚峙嶺)에서 자동차전복―

지난팔일 오후세시반쯤 공흥자동차(共興自動車)회사(함남일호)화물자동차가수전회사 공사재료를 잔뜩실고 북청으로부터 풍산을향하야가든도중 후치령커―부에 다달엇슬때 조종을잘못하야 삼십척이나되는 강물에 전락되얏는데 운전수배치림...

道營特産取引所를 羅津港에서要望

淸津商議에諒解運動

【淸津】라진항(羅津港)에서 다년간 요망하야 그생명선으로 역여오는 특산물 취인소신설(特産物取引所新設)에대한 문제는지세의 변천과 라진항자체의 성장에 따라 정치적문제화되여가고잇다 지난십삼일에 라진상공회장(羅津商工會長)은 청진상공회의소를 차저와 도영 특산물취인소(道營特産物取引所)와 라진설치에대한 원조와 양해운동을 한일이 잇섯다어는 엇자가 다년간 현안으로 역여오든바 특산물의 중심수송항인라지의 특수성에 비추여 합동되로서 이특수사정에 적합하도록 도영으로 취인소를 설치해달라는 운동인데 그는오직 경쟁항으로서의 청진항에 양해를구하여야할 필요에 의한것이라하야 금후그경과가 주목되고잇다한다

驛에서驛으로 詐欺行脚怪漢

被害金額이千餘圓

십삼일오후 여덟시쯤에경성역 삼등대합실안에서 거동이수상한 사십세가량되여보이는 남자를룡산서소천(小泉)형사가 체포하여 인치 시키고취조한결과 의외로 이자는전과륙범으로 강도미수절도 사기등의무직한 죄상을자백하엿다한다

이자는 본적을전남라주군영산포(羅州郡榮山浦)에두고주소부정의 조희선(趙熙璿)(四?)으로 전조선을 편답하여도라다니며 강도질을하기도하고 혹은 정거장을 근거지로 어수룩한 시골부녀자를 속이여 금전을 편취해먹어 그피해액이천여원에 달한다고한다 작년십이월십일밤에 진주읍(晉州邑)모내지인전당포에 침입하여금전을 강요하다가 목적을 달치못하고 도망하여 전주(全州)지내에 잠입하엿다가 전주역(全州驛)에서 부녀자를 속이여 서 이십원을 편취하엿스며 그후에 대전역(大田驛)에서 동일한수단으로 오십원 편탈여(?)주한역(?)에서 이십원 성환역(成歡驛)에서 십칠원등을 편취하얏스며 경성역(京城驛)과 룡산역(龍山驛)에서는 삼백원을 편취해먹엇다고 자백하얏다는데 그외에도 여죄가상당히 만흘것으로 보이며 목하고송(高塚)사법주임의손에 엄중히취조를 진행중이다

競技中心을揚棄코 民衆體位向上에邁進

日本體育協會改組案

國民의體位向上問題는 現下가장重要한問題로서 厚生省이創設된것도 이問題로부터 出發된것인데 國民保健의增進과 體位向上에 對한運動體制로 國家的인一大機關이 厚生省을 樞軸으로近近誕生될모양이라는바 이機運을促進시킨것은 競技中心의 舊套를 버서버리고 國民體位向上의一大機關이 되려는 日本體育協會가 率先하야 硏究中이든바 體協自體로서 그重要使命을 達成하기에는 無力하다는 結論에到達하야 舊臘末 文部、內務兩省及軍部에對하야 諒解運動을 하야 今年드러서 厚生省과의 諒解도되엿고 도在鄕軍人 武道關係團體 靑年團 少年團과도 聯絡하기로되여 三月上旬에는 一大體育團體의 具體化할터이라한다 同機關의目標는國民에게 適當한運動을獎勵하야 民衆體力의向上을 圖謀하는데잇스며 그方法으로는 各社會層職業別에依하야 各히適當한 運動種目을 調査하야 이것을 普及시키는 指導者의養成、派遣、運動施設의 增加等을 考慮하고잇는데 同機關構成은 半官半民의 團體로될모양이라한다

스포츠入場稅 興行物과는別個

大藏省增稅案中에 스포―츠課稅를 包含한關係로 아마튜어·스포―츠擁護의見地에서 下村體協會長의 大藏次官訪問과 平沼體協副會長의 貴族院本會議에서의 木戶厚相에對한 質問으로 一般興行物과 別個로取扱되는課稅를希望하고잇든바 아마튜어競技場의 入場稅도 入場料의一割課稅로되여 一般興行의十二日의 閣議에 附議하야決定을보게되여 十三日의衆議院에 提出하엿다 그리고 入場料十九錢未滿은 課稅치안키로 되엿다

定平農組事件 五名控訴公判

今日京城法院에서

지난소화칠년봄 정평농민조합(定平農民組合)사건제일차대검거가잇슨후 이를 재건하고저 지하에숨어가며 동리마다 리반(里班)을 두고 동지를 모으기에 맹렬한 활동을하엿다는 혐의로 치안유지법위반 및 출판법위반죄에 걸리여 재작년이월십팔일 함흥지방법원에서 최고징역 한영윤(韓永允)(?)등 다섯명만 불복공소한것으로 일심판결까지의 징역판결을 바든사건으로 그중칠부 복죄하고 다섯명은 이날경성복심법원에서 공판을 열리여 개시하얏다

▲韓永允(?)(一審七年) ▲李甲變(?)(同四年) ▲崔豊烈(?)(同六年) ▲韓泰準(?)(同五年) ▲金昭福(?)(同四年)

天氣豫報

京城地方은 오늘맑과 내일은 흐리며 京畿道全區도 以上과갓다

昨日最高	六度六
同 最低	零下八度四
今朝最低	零下零度七
今日正午	零度七

高貴漢方

神人道師 葛玄眞人 의秘方藥 百補丸

補陽補腎補腦補血補精 ... 神不老長生 ... 仙藥 根本的回春壯陽强精强筋强骨補力平生無病健康長壽劑

百補丸을쓰면감긔와체증을모르고過色過飮으로 因한諸症을完全히回復

立春大吉

大補元氣

●肺病、늑막염、神經衰弱、氣血俱虛、陰虛火動、陽氣虛失等、다시 추서기어려운 重病도 모다 立春을마라 더욱 甚해지기 始作합니다

●只今 百補丸을쓰면 大補元氣 補陰 補陽 氣血雙補하야 모든 重病을 未然에 防止하고 감긔와 체증도 모르고 陽氣自興 用之不渴하야 房事過度를 모르고 치위도 모르게됩니다

過色過飮으로因하야 몸이虛弱하기始作한사람은

一、百補丸이 아니고는 完全히 永久히 回復되는藥이 다시업슬것을 明言합니다

二、人生의 再逢春、無病、健康、長壽、享樂이 모다 百補丸으로되며

三、百補丸으로 回復된陽氣는 陰中生陽이므로 其根이 完固하야 永久不衰합니다

堂堂、世界第一證明이되엿스니 服藥家의 疑心은 一掃되엿습니다

世界第一

▲朝鮮에도 世界各國에서 조타는補藥은 各種各色이 全部輸入되여 그猛烈한 販賣戰을하고잇스나 그러나 그中에도

▲賣上으로도 百補丸이 第一이요 貴族兩班을 爲始하야 京鄕各界 朝野名士점지안은분들의 愛用과 大推奬을 밧는것도 百補丸뿐이요 數十萬服藥家가 效力조타고 方々谷々에 稱讚의 소리가놉흔것도 亦是 百補丸뿐이요 또

▲京城四大郵便局의 發送數字가 朝鮮藥業界有史以來에 特別 越等 最高라고 證明되는것도 百補丸뿐입니다

●世界의자랑 天下의 名藥百補丸은 朝鮮第一을 土臺로 世界第一의 百補丸으로벌서

●英國、獨逸、佛蘭西、米國、瑞西、丁抹、伊太利、和蘭等 二十一個所에 輸出開始되엿습니다

이것은 全혀 그效力이 神奇하고 圓滿하기때문에 西洋사람들도 歡迎하는것입니다

百補丸의效力은 이러케굉장합니다

一、氣血이俱虛하야 貧血이되고 形容이창백하고 全身이衰弱한분

一、性慾이全無하고 手足과 下초가 恒常冷하고 肢節腰痛으로 고생하는분

一、口味업고 消化不良과 체증 속병등으로 고생하는분

一、肺가不足하고 元氣와 精氣가업고 허리가압흐고 四肢가勇因한분

一、神經이衰弱하야 머리가무겁고 記憶力이不足한분은 早老할 征兆이니 一日이라도 速히 百補丸을服用하여 씩씩한 靑春이되시요

一、腦髓에드는듯하여지고 氣血이 旺盛하여지고 힘이생기고 眼力이밝어지고 ...

一、消化不良 체증 속병가든것은 어느때업서진지도 알지못하게업서집니다

一、눈이밝어지고 精神이조와지고 皮膚가윤택하고 血色이조와집니다

一、全身五장六부를 다補하야 참말完全히陰陽雙補하야 體重이增加되고 陽氣가大旺합니다

一、過飮過色한人은 ホルモン不足으로因한腎、性神經衰弱한人에는 더욱效力합니다

一、長久服用하면 精力絶倫하야 一生을 無病健康한몸으로 不老長壽할수잇습니다

一、年久咳嗽와 吐血、喘急、氣促症도 消滅됩니다

高貴漢方 婦人百補丸 發賣開始

生男生女·天下待望의世界的名藥

藥價 百補丸 一劑 特價 拾圓 婦人百補丸 一劑 特價 七圓

無料進呈 三劑以上注文하시면 共同一周旋人에게 一劑無料進呈함

重要販賣所 ▲本社直賣部▲朝鮮總督府商工奬勵館▲全朝鮮十三道廳商工奬勵館及商品陳列所▲全朝鮮有名藥店▲和信▲三越

京城府堅志町五、

平和堂株式會社藥品部

電光六三二番·三三〇番·振替五番

昭和의常識

新聞紙는 高價物의 小說보다도 愛讀者로 만히購讀한다고 價値의 保護이다

一家의主人은 각금 우수운소리를 할아듸시해두면 家庭가 明朗化된다

子女는 父母의 所有物이아니고 社會로부터 委託바든거라고 생각하여 주라

仁丹

國民精神總動員의今

이生活과 이健康을만드는 仁丹의藥效!

仁丹으로 健康報國

慰問袋에 仁丹

早春이라고는 하지마는 朔風이휘날려 몸을 에여내는듯 只今이야말로 보내라! 戰線에 第一조아하는 慰問의 仁丹을 水土不服·感冒·口腔衞生에 仁丹의貴重한 藥效는가장歡迎됩니다

頭痛에

憂鬱、頭重에는 仁丹을 數粒乃至十數粒한꺼번에먹으면消退効果는금방엽니다 目下流行하고잇는感氣豫防으로서仁丹을連用하면 抵抗力을훨신强하게하는結果그効果는 充分期待됩니다

胃腸에

쓸쓸하고 不快하며 먹기에不便한藥과는 달러서 어데서나 꺼내여 입에만 너흐면 爽快感은 全身에퍼지고 게다가 過食·食傷·가슴이각갑하고消化不良한데는勿論이고胃·腸가다루에까지 미치는特効는 다만仁丹만이가진 特色입니다

榮養에

榮養의不足은 모든病菌을 誘引하는 原因이됩니다 그러므로 健康을持續함에는 끈임업는榮養分이 必要합니다 그榮養을 가장 簡單히 攝取함에는 仁丹의常用으로 充分합니다 即動植物兩호르몬·비타민B·朝鮮人參·사후랑의强精新成分이야말로 仁丹에 含有한 누구에게나 必要한榮養分입니다

仁丹은

生活에 굿세고 快活하고 明朗함을 준다

仁丹에 含有한 强精호르몬과 비타민B의 强健効果는 更히 高貴藥 사후랑의 淨血、血行의作用과아울러 明朗健全한生活을 만드러냅니다

仁丹은

非常時에 處하는 爽快한精神을 作興한다

國民精神總動員!只今이야말로 全國民이 一致해서 爽快한精神으로써 臨해야할 緊急한때입니다 此際 仁丹의 頭痛、眩暈을 消退해서 記憶力을增進하는 明腦作用이야말로 刻下의 最急務입니다

仁丹은

生活上 決코 업지못할 常備藥입니다

應接할때의 口臭에 飮酒할때의 惡酔豫防에 喫煙의 니코-틴緩和에 其他 集會 觀劇、口渴、口粘 外出 旅行等모든現代生活의 潤擇에 仁丹은 絶對놀수업습니다

仁丹에含有해엿는 ガラナ에對하야

植物호르몬劑로서 젊어지고 長壽·强壯·健胃·整腸·補精·疲勞恢復·血行促進에 絶大의 効果를가진 ガラナ는 南米아마손河畔에産하야 古來로부터 土人間에는 藥木 靈木이라고하야 崇拜해왓섯는데 顯然한効果는漸次歐米藥界의 注視하는바가되고 研究의結果는 今日의 歐米藥局方指定精力劑라고까지 珍重하게되엿습니다 ガラナ의 果實 엑기스·カフエイン·ガラナタンニン酸·リンゴ酸은 비타민이 豊富함과함께 實로 놀날만한 効果가잇고 仁丹이 世界的新發見精力劑의 賦合에 成功하고 그 効果를 잘收集하야 益益 그需要를 擴大하게된것도 ガラナ의 호르몬을配給하야 高貴한麝香의動物호르몬 비타민B、사후랑等의 綜合効果에因함임을 밋는바입니다

仁丹의種類

種類	品名	粒數	價格
銀粒	御試用分	百五十粒	十錢
銀粒	富士容器附	三百二十粒	二十錢
銀粒	滿洲容器附	四百粒	三十錢
銀粒	家庭容器附	九百粒	五十錢
銀粒	御徳用分	一千粒	五十錢
銀粒	日滿容器附	七百粒	五十錢
銀粒	御徳用瓶入	二千二百粒	一圓
銀粒	小袋入	百五十粒	十錢
ローズ	御徳用分	三百粒	五十錢
赤大粒	金書容器附	百六十五粒	二十錢
赤小粒	御徳用分	五百五十粒	五十錢
麝香	瓶容器入	二百粒	五十錢

本舖·森下仁丹株式會社

00?610

家庭

손톱밧작깍거도 생인손이돼
손끄치긁히거나찔리거든 곳소독을하고약을처매일

생인손은 지금으로부터 봄까지에 제일만히 잇습니다 원인은 손구락에 가시나 유리쪽가튼것이 찔리던지 바눌이찔리던지 손톱을 넘우깍것슬때 아주적은 험에서부터 생인손이되는 수도잇스나 글킨데나 터진데 균이 침입하야 되는것입니다 맨처음의 상처가 크면 누구나 주의하야 의사의치료를밧드나 글킨데나 조곰터진데는 손톱을 파하깍근것과마찬가지로 그다지 주의도하지안코 그저 간단한고약을 부처두는것입니다 그러므로 균이들어가기쉬운것입니다.

상처에 드러가는 균은 포도상구균(葡萄狀菌) 연쇄상구균(連鎖狀菌)이 주장이며 그박게 임균(淋菌) 폐염균(肺炎菌) 대장균(大腸菌)등도 드러가서 염증을 이르키게 됩니다 기시작하야 신경을 수시며 아프거던 곳치료하는것이 조흔데 그냥두면 염증은 점점기피들어가서 골막(骨膜)이나 관절(關節)에 이르고 임파선염(淋巴腺炎)을 이르키거나 위험한 패혈증(敗血症)을 이르킵니다.

글킨데나 터진데나 가리 상처를 허르말트면 입가운대의 단백(蛋白)이분해하야된 독소때문에 염증은 더해지는것이므로 언제나 청결케하야 두되 제일간단한것은 옥도정기나 옥도코로칭을발르고 반창고를 부처두는것이 조습니다

양약이나 리소-르로 오래동안 습포(濕布)하는 것은 도로혀 염증을 이르키기쉬우므로 주의하지안흐면 안됩니다.

터진상처가 대단히 아플때는 물에붕산과 표백분을조곰식 타서 손구락을 넛코 조곰잇스면 아픈 것이 덜해지고 기분도 조화지며 손톱도 됩니다

일을할때는 손구락에 손구락싹크를 씨우는것도 조흔 방법이며 되도록 고무장갑을끼는 것이 조습니다 될수잇는 대로 손가락을 어가지못하게 붕대를감어두시지요 조곰이라도 이상이 잇거든 의사의치료를 바드시요 흔히혼자서 곳치다가 나중에더처서 수술을하게되며 지나치면 손구락을 잘러버리지안흐면 안될 중지에 빠지기쉽습니다

여자담배는 더해로워
심장이약해질뿐더러 어린애기가말러간다

담배가 해롭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아는바이니 더말할거업지만 녀자가 담배를 피움으로해서 밧는영향이 남자와 가튼지안가튼지 이것을 문제삼어 볼만합니다 다음은 여러분께 참고삼아 외국의학자들의 연구보고를 소개하겟습니다.

태아에대한영향

『조라-크』박사와 『위-레스』박사는담배의 『니코친』이 파연 여러사람들이 말하는바와가치 어머니의 태반을 통해서태아의 혈액순환에 영향이 미치는지 안는지를 연구하기위해서 다섯사람의 임부에게 담배를 피우게해가지고 태아의 심장고동에 변화가 잇는지 업는지를 조사해보앗습니다. 그런데 태아의심장이 일분동안에 평균 다섯가량증가하는것을 알게되엿습니다. 이것으로해서 두사람은 임신중의 부인이담배를피우면 태아에게 대단히해롭다고단언을햇습니다.

여학생의맥박

『부라이안』박사는 스무살로부터 스물다섯살까지의녀학생 일백이십팔명에대해서 맥박을 조사해본즉 평균맥박이 담배안피는학생은 八十 약간피우는학생은 八六 몹시피우는학생은 九〇이엇습니다 이조사는담배피우지안코잇슬때에 한것인데 담배를 피우고 잇슬때에는 더 빨라진다고 합니다

모유에대한영향

『부라이안』박사는 도한사람의 젖이 담배피우는 어머니에 대한것을 보고하엿습니다 젖이 만히나오고 규칙적으로 젖을 먹이는데도 불구하고 그녀자의 어린애는 점점토하며 자꾸 말라감니다 아모리 해도 고치지못하엿는데 그녀자가 지독스런 담배피우는 사람인것을알고 담배를 끈케 하엿드니 어린애는 그런병이 업셔지고 잘자라난다는것입니다. 즉 어머니가 담배를 피우면 『니코친』은 젓속으로도 분비된다는것이 『부라이안』박사의보고입니다.

이상과가티 여러사람의보고에 의해서 볼것가트면 녀성이 담배를 피우는것이 오른다 안오른다는 차치해노코 어머니가될 녀성이라면 담배는 절대로 안피워야할것입니다.

和信百貨店主催 編物講習會 오는十五日부터

금년에 제오회가되는화신백화점주최의 무료편물강습회(無料編物講習會)가금초旬두에 예년과가티 시내화신백화점사층별실(和信百貨店四層別室)에서 오는십오일 오전십일시부터 개최되리라고하는데 이번에는 특별히부청에 실용될만한모사편물(毛系編物)의수편법(手編法)을 사계의권위 정일신(鄭一信)여사가 지도하기로되엿다고하며 회원권(會員券)은 화신수예품매장(和信手藝品賣場)에서 무료로진정한다고합니다

경성안 녀학교 올졸업생 ALBU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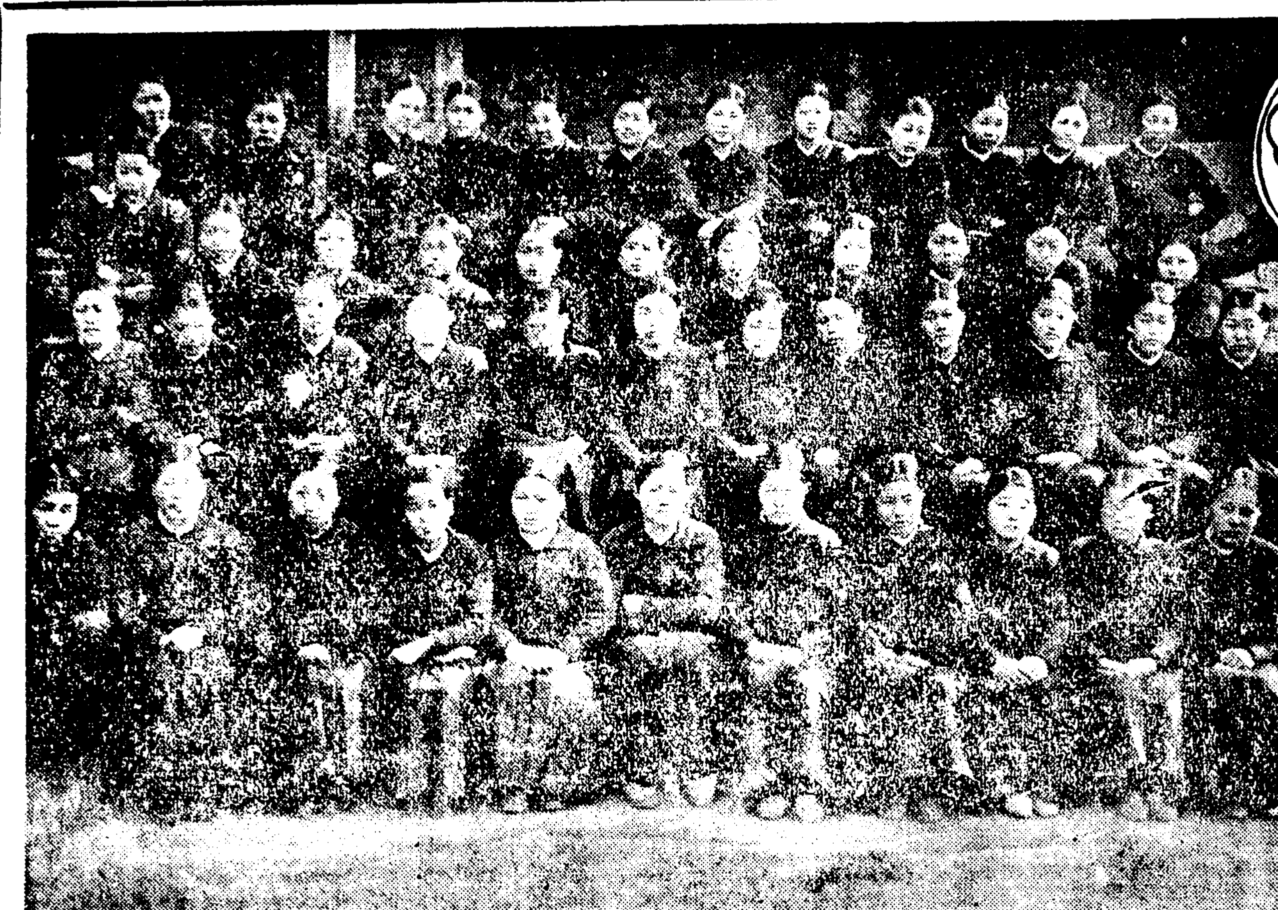
반가운선물은 모교의기쁜소식
온후한사층교사가금년중에돼
활개짓하는올졸업생

槿花女實

送別歌

一、기약업시 서로만나서 어느결에 정이들엇고
아침저녁 마주안저서 눈물과 웃음을웃엇네
잇지마오 벗님네들 어듸를가나 서로잇지마오
잘가시오 벗님네들 편안히 가-시오

二、기약업시 떠나는길음 어니적에 다시만나리
구든마음 변함이업시 이겨레 위하야일하오
잇지마오 벗님네들 어듸를가나서로잇지마오
잘가시오 벗님네들 편안히 가-시오



지리한 겨울이 엿습니다 보리빗옷숨을 벗인 당신의 얼굴이 보구십습니다 봄도 멀지는 안혼가 봅니다마는 기다리는 마음은 몹시 안타까웁습니다.

안국동 근화여자실업학교(槿花女子實業學校)의 운동장엘 드러서기자는 마음속으로 이학교의 차다운봄을 빌엇습니다.

싸늘한 아침바람이 귀미테솟여들엇습니다 운동장엔 인끼척이업고 사무실 난로가에는 선생님들이 둘러안저서 봄마지할 학교의 우렁찬소리를 준비하느라고무어인가 나즉이 이야기하고 잇섯습니다.

가난을 달게밧다못하야그것이 습관으로 되다시피한 우리의 살림사리라 어느기편인들 처음부터 화려한때 때옷을입고 자랏스리요 마는 가시밧우를 맨발로 거러온것이 우리근화의 내력입니다 기자는 여기서 이학교의 내력을 잠간 이야기하지안코는 백일수 업는 추동을 밧고잇다 이야기는 옛으로 도라간다 대정구년구주대전이 끗나고 세계는새로운 윤리를 차저서 허러진 생활의 재건을 꾀할때 조선에서도 배우자!새로운 지식을 배우자 소리가 절실한 부르지즘으로 나타나서 삼사십고개를 넘은사람들까지 학교의문을 두다리게되엿습니다.

그래서 규중에 드러안저야만 여자의직분을 다할수잇다던 조선의여성에게도새지식의 이스를머어야만살수잇다는것을 깨닷게되서 이미나이가만하서 배울수업는 여인네를모아노코 시내서대문정 신문내교회의지하실에서 고고의성을 낸것이 이학교의 첫시작이엿습니다 그리하야 교장 차미리사(車美理士)씨의 늙어겨운 정성은 마침내 오늘날의 근화여자실업을 만드러노핫습니다 춘풍추우여덟해ー가지풍광과 고초를겪고 근화는자라낫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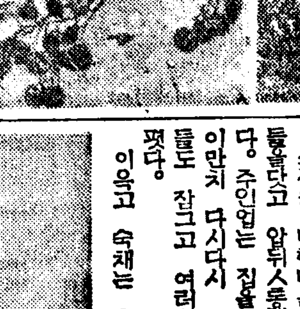
올라리미테서 작이트면 얄미오멉소가 짝을찰러먹엇고 가시허자라서 꼬축매스라면 바람이 불기를며번ー지금은 끈라에서 어든도세힘이 잇는지라 순조로히 자라날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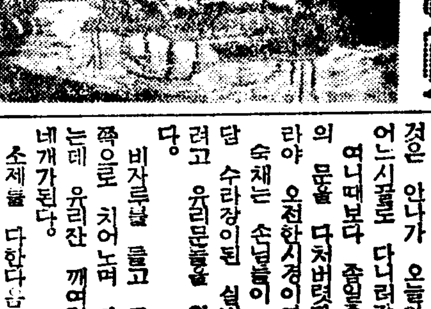
지금까지 근화여자교가우리사회에 보낸일꾼은 유백명에가까우나 실업학교로되고는금년이 삼회졸업생을내게되엿습니다.

배고픈자에게는 숙히밥을 할것이 필요하지안습니까 사람이모자라는 우리에게 큰 지식과 이상도 필요하겟지마는 진실하고 일잘하는가정부인ー살림사리는 주부의손에 바로잡힐것입니다 이학교에서는 그저수번한일꾼을 길러내이는것이교풍이랍니다.

여기서 이러한건실한살림사리를 배운아가씨들은 각각자기의 직분을 하기위하야우리사회의 전반에 흐터짐니다. 고마운일입니다

금년에는 지금의전여평되는 자리에다가 건평칠백평의 사층양옥으로 교사를신축하야 내용을쇄신하고 적극적으로 발전할계획이 구체화되여서 하기방학부터 기공하리라고합니다.





금년도졸업생은모두 오십삼명인데 그들의 지망별을 따저보면 취직 이십오명 상급학교 오명 가정 이십삼명입니다. 이학교의 졸업생전체의경향은근검파착실로일관되여잇습니다.

취미파가적이 대부분이란 것은 그학교의교풍을 잘말하는것입니다. 졸업생가운데 차숭금(車崇金)、최옥자(崔玉子)는교원으로 문월선(文月仙)、정옥자(鄭玉子)、리귀주(李貴柱)、조용와(趙容完)、김병일(金炳一)양은 우등으로 뽑혀 전부개근으로 유명하다 합니다.

그밧게 정차희(鄭次姬)양은 중등학생미술전람회에 입상을햇다고합니다. 그뿐아니라 김찬록(金瓚錄)양은 학교의인끼를 독점하고 잇는 씨앗이 학교의습관을만드러놋는 유ー모리스트입니다.

차숭금양은 연극을잘하며 최옥자양은 시(詩)를 잘짓는다고 합니다.

금년도졸업생은

金貞順 鄭次姬 吳鶴淳 黃貞燮
金俊玉 韓泳完 崔明淑 尹得氷
張姬淑 文月仙 姜相月 金鋼玉
劉煥四 金丙淑 金炳一 金琦瑙
金延蓉 李英姬 馬良順 許英子
金賢子 尹貞烈 朴鶴福 鄭鋺
李惠淳 白業姬 孫桂永 崔玉子
尹庚順 金鳳淑 尹南愛 李鶴福
池貞信 鄭炳任 金瓚錄 李淑蓉
崔初禮 馬玉英 河率禮 李玉瓊
鄭玉蓉 李和順 金泰吉 李貴柱
鄭福姬 姜順業 廣孝淑 韓鳳愛
崔福子 印仁順 車崇金 元桂順
李玉禮

(사진은 이번 졸업생들、학생들의 기예작품、교내연극대회의장면)

교복ー여름에는 하얀 부라우스에 곤색스카-트를입고 겨울에는 수박빗갑 세-라에 역시 곤색스카-트를입고 검정양말을신습니다

교표ー풀른빗갑 동근바탕에 보라빗무궁화가 그리어잇고 그꼿송이속에『實』자가 배치되엿습니다

풀른바탕은 무궁화의사귀비추어서 희망과 진실을 상징하고 무궁화는 이학교의 이름을 나타내엿스며 조선을 의미한답니다

中篇小說 女人命令【44】

李善熙 作
崔根培 畵

거리의동무(十一)

어느날밤 숙채는 혼자서『빠ー』의일을 마터보게되엿다. 그것은 안나가 오늘아침에 잠간 어느시골로 다니러갓기때문이다 여니때보다 좀일즉이『빠ー』의 문을 다처버렷다. 좀일즉이라야 오전한시경이엿다.

숙채는 손님들이 다빠지고난담 수라장이된 실내를 소제하려고 유리문들을 활짝열어노핫다.

비자루를 들고 교의들을 한쪽으로 치어노며 마루바닥을쓰는데 유리잔 깨여진것만도 세네개가된다.

소제를 다한다음 다시 덧문들을닫고 압뒤ㅅ문을행문도 잠것다. 주인업는 집을 마터서보는 이만치 다시다시 조심해서 문들도 잠그고 여러번 방안을살펏다.

이윽고 숙채는 손을 내밀어 스위치를 돌려서 방안에 불을 탁 꺼버렷다.

갑작이 어두운 방안엔 저ー쪽『카운터』에 조그마한 붉은 불비치 켜잇슬뿐으로 방안은어두엇다.

숙채는 무서운 생각이 나서 얼른 안으로 드러가려고하는데안에서 마음 고서방의 팔소리가 커다라케 들린다. 사람의 말소리가 들리니까 행결무서운 생각이가라안저 숙채는 다시한번 방안을 살펏다.

그순간 숙채는 두손길을 마조잡고 우두머니서잇섯다 그리다가『카운터』쪽으로 가서 주저안저버렷다.

지금 밀감색(蜜柑色)불비치비 안하나 가득히 담겨 그가운데 테불이며 교의며 그림들이 모두다 용광로 속에드러간것처럼 빨갓코 흐물흐물하게 녹아빠지는것갓다.

숙채는 빈『카운터』에 두손으로 얼골을 바치고안저잇섯다 마치 전에 학교에서 당번이되여 소제를 다하고나서 쉬는참에 선생님 교의에가서 안저보면 아이들이 죄다돌아간 교실안이 이상스럽게 깨끗하고 조용한것이 조흔생각이 못드러간다.

어두운 벽에서 시게가새로두시를친다. 숙채는 지금 유원이를 생각하고잇다. 면회할때본 그창백한 얼굴이 보힌다 그러나 그것도 사진을 들고안저보는 듯이 아니고 동그런 유리우에 코ㅅ대만 웃둑보히기도하고 흑은 얼굴어느한쪽만 보히기도하는데 그처럼 생각하는 사람의 면영(面影)이 그처럼 분명하게 밧바보이지안는 까닭을 숙채는 두고두고 지내보아도알수가업섯다.

『버스넌 버스넌』

숙채는 깜작놀랏다. 어디서무슨 소리가 나나하고 사면을살펴보아야 아모것도업다. 압뒤문을 다잠것는데 무어이잇슬리가 업다.

『아마 어디서 쥐란놈이 딸부스러기라도 숨고잇는게지』

『유원이가 내가 이런데와잇는줄알면 뭐시라고할까』

숙채는 이런생각을햇을때 가슴이또끔햇다. 아모래도 유원이를 생각할때는 검정치마에 자지저고리입은 숙채가 나서는것이고 지금의 자기는 좋어새하는것이다.

『한개의 생활에는 반드시 거기에 따르는 빗과 냄새가잇고 이부류(部類)에서 저부류의 새이에는 엄연한 경계선이잇는가보다』

그러나 숙채자기는 잠시 안나의 대신으로 이일을 마터쁜이라고 생각햇다.

숙채는『카운터』우에 한팔을 꼬부려 벼개를하고 엎드렷다. 두어방울의 눈물이 꼬부린팔새이로 떠러젓다.

이것은『유원』이를 생각할때마다 흘리는 눈물이다. 그러나 조곰후에 숙채의 생각은 다른데로 다라낫다.

숙채의게잇서서 유원이의 생각은 마치 만성병(慢性病)과가티야 그줄음이 가슴에 콱박혀 잇술지언정 그가 업는 세상이라고 금시로 자살을하거나하지못하는것을 또숙채는 제스스로 기이하게 생각햇다.

『오늘밤은 이대로자지말자』이때 분명히 어디서 발자최소리가낫다.

『용서하십시오』

『……?』

숙채는 손가락하나 깜작못하고 아래와 딱마조서서 사나이를 처다보앗다

『용서하십시오』

『에?』

사나이는 모자를 한손으로벗스며 숙채의게 경의를 표한다

盜汗으로거정거리든 愛兒의肺炎이

【福岡】 白山美子

只今으로부터 꼭 二年前의 가을 肺炎을앓코 오래동안 入院하고잇든 長女(三歲……當時一歲)가 快癒되야 집으로 왓스나 盜汗이甚하야 이불까지 축축이 저질 지경이며 낫잠도 재우지못할 지경이엿습니다 단골醫師에게 診察을 바든結果 밥을 먹기始作할때까지는 이대로 두는수밧게 업다고합니다 이렇게 땀에 옷을 하로에도 四五回式 가러입혀야될 지경이므로 애기는 기껏나어온듯 感氣로 또 걸리게되고 남이 조타는것은 다 해보앗스나 結局 더해갈뿐입니다

어떠날 박강양바이 商店에서 도라와서 선사라고하면서 『錠劑わかもと』를 사가지고 왓습니다 곳 먹이기始作하엿든바 그러케 甚하든 盜汗이 씻슨듯이 나어젓습니다 그때의 기쁨이란 지금도 잇지못하겟습니다 그예회물어더 지금도 하로 빼노치안코 먹이고 잇습니다 애기는 콩이라고하면서 잘먹습니다 요지음은 감기하나 안걸리고 每日 열븐옷을입고 뛰어다닙니다

家庭醫學

惡性流感跳梁!
ー可恐할幼兒의死亡率
어머니들이아러둘 小兒肺炎의療法

新春早早부터 流行性感冒가猛威를떨치기始作햇습니다. 醫院衛生課의調査에依하면、正月以來一日平均五六十名의死亡者가잇고 그中七、八十퍼-센트는

幼兒 의 死亡者라고 하는대 今番流感은 性質도惡한 것이여서 四十度程度의高熱이數日式 繼續가고 기침도 甚하야 大部分의 幼兒는 肺炎을 併發해서 死亡하는 것입니다 애기들이 잇는 家庭에서는 애기들의 健康에 注意를 잘해서 感冒豫防에 힘쓰지안흐면 안되며 또 不幸히 感冒로 肺炎을 併發햇더라도 곳適當한療法을 講究할만한 知識이必要합니다 從來 肺炎의 療法으로 말할것가트면 病室을 꽉닷고 물을끄려서 더운김을무럭무럭나게하고또 작구濕布를하는것이 唯一한方法으로만아라왓지마는 最近에는外國에서도 임이效果를認定하고잇는大氣療法ー病房門을열수잇는대로開放해서

新鮮한 空氣를 吸시키고 또濕布를하지안토록 하는것이 그럴 必要가업는弊가잇스므로 充分히治療도 身體의安靜을지킬수가잇고 또애기를 安靜시키는것이 心臟을 疲勞케하지안코 더구나睡眠時에도 濕布를 하지안어도되므로 睡眠도充分히할수잇다는것입니다 이方法에依하면 在來의 濕布法은 食慾이업는兒孩가 飲食을잘먹게되고 呼吸이 편해집니다 그러나 肺炎의治療에가장重要한것은 充分한榮養과安靜、그리고睡眠이며 이方法이有效하다는것으로보다 濕布를實驗한結果로는 무어보다 이方法이有效하다는것입니다

受驗工夫하는아해에 酸性食物은나쁘다
★ー肉類와鷄卵을함부로먹이는害

애기들의 非常時라고도할만한受驗期가 迫頭해옵니다、조고만몸에 全勢力을傾注해서 試驗工夫를하는것은 정말가엽슨일입니다、그러만치健康上에도 平素보다는一層注意를하는것이 緊要합니다

榮養이豐富한食物

榮養이豐富한食物로서 普通누구나第一먼저먹이고십허하는것이 肉類와鷄卵과牛乳、或은그에類似한成分을가진榮養劑입니다 그러나 이러한食品을 榮養價가 만흔것으로 생각하는것은 脂肪과 蛋白質의 榮養價만생각하는 지나간 榮養學의 思想으로서 지금은 蛋白質과 脂肪의過剩으로오는여러가지 弊害가 明確히되고잇습니다 그中에도 最近特히 注意하게된것은 此等食品이 人體內의 血液이라던지 體內의水分에 對해서 或種의 有害한 酸化를 이르킨다는것입니다

體內의水分ー體液은 弱알카리性에 기우러져잇는것이 健康한것인데 아ー가리性이 減退해서 反對로 酸性으로 기울러지게되면 身體는 病에걸리기쉽고 抵抗力은 減退하고

頭腦의活動도鈍해집니다

肉類라던지 鷄卵或은菓子類는 이體液을아ー가리性에서 酸性으로 變化시키는作用을 가진食物인故로 試驗工夫할때에는特히過食하지안토록注意치안흐면안됨니다

그러고 또하나注意하지안흐면안될것은 工夫할때는 運動不足으로因하야 便秘하기쉬우므로 이것을 防止할注意가必要합니다

便秘가머리에害로

온것은 便通이 여러날업스면 머리가 흐릿하고 頭痛을 하게되던지하는 經驗을 하신이가 만흔것으로 알겟습니다 그런고로 애기들의 營養을 補充하고 胃腸도 튼튼히하고 便通도 잘잇게하는데 適當한것으로 現在널리小兒科方面에 쓰고잇는『錠劑わかもと』의 服用이 有效합니다

『錠劑わかもと』에는 脂肪、蛋白、蛋白テリ고ー겐、燐、鐵、비타민B와가튼多種多樣의 榮養素及十數種의 活性酵素等成分이 含有해잇습니다 이 酵素는 體內의各機能에 活力을 주어서그活動을旺盛케하는作用을가지고잇는대特히 胃腸을튼튼히하는作用이顯著해서 消化吸收의 活動을助長시키는 故로 榮養狀態가조아지고 抵抗力도强하게됨니다

그러므로 이藥을日常服用시키면이러한不安은 自然히업서질것이며 그豫防으로는 勿論이고肺炎의 治癒는이療法과아울러 一層促進되게되는것입니다

效果

이러한경우에 이것을豫防하고 體內로부터 抵抗力을 强케하야 榮養劑가 必要한대 거기에는 現在널리小兒科方面에 쓰고잇는『錠劑わかもと』의 服用이 有效합니다

이『錠劑わかもと』는 二十五日分一圓六十錢 八十三日分五圓에 東京市芝公園大門內 わかもと本舖榮養と育兒の會(振替東京一七〇〇番)에서 發賣되고잇는데 近來 이에類似品의 利用해서 効果疑問의 類似品을勸하는藥店도잇사오니 注意하십시요

빗나는 希望 넘치는 元氣 모두 大黑의 한잔에서

大黑葡萄酒

需要家 써ー비스規定

景品內容一組分		
一等	金貳拾圓也 引換券一枚	一口
二等	旅行用ケース	三口
三等	秩父銘仙夜具地一反	五口
四等	ブンジ四方刀 安全剃刀	十口
五等	婦人用懷中鏡	三十口
正規應募者全部에게	日入호ー지一枚식 進呈	

應募方法 [illegible]

一、送先 東京市淀橋區下落合 大黑葡萄酒株式會社 サービス係
一、抽籤方法 一口每に抽籤券一枚 [illegible]
一、締切期日 二月末日
一、發表 四月上旬

書齋閑話
넷智識과새學問 (四)
朴英熙

읽어서 明鏡을 알고 會音이 러한 이러한 情景을 눈아페 오매 白髮을 바라본다。頹伯이 그리어보기도 하엿다。이러한이 죽은後는 도다시 글을 읽하지 어찌 옛날에만 잇기를 願하엿 안엇다는것이니 벗에 對한 사랑과 아울러 벗을 참으로 理解하고 痛歎한 그사람의 心境이 그윽이 생각되면서 나는 이라!

◇

『셰스피어』의 著作들은 읽고 또 읽어도 新鮮와가티 새로운 맛이잇을 키닷게된다。『셰스피어』의作品은 그藝術하고 劇한 精神과 그劇的觀察을 卓越한 才質도 그著作들이 傑作되는 動的인 要素이겟지만, 實로 사람의 內面生活의 아름답곳, 더럽운것을 밝이 비치는데도, 그實質的價値를 求하게되는것이다。何代何時에 人生의 이며 一時一面이 모다 숨어 아큰表現을 말하지 안흘수업다。자미잇을뿐만 아니라 무엇을배우게되며, 아울다음만아니라, 무엇을 깨닷게한다。이러한것을 어찌 옛날 文學에서만 읽기를 쁨을것이라!

그一例를『베니스의商人』에서 차저보면, 이야기의 숨든가 關聯과 感情과 興味로 되어잇지만, 그 最後의 포샤의 求婚試驗에가서 金, 銀, 鉛 세箱子에서 나오는格言도 또한 興味를 이르킨다。

All that glistens is not gold

「빗나는것이 모다 金이 아니다」라는말이나 또는「사람은 그外樣에 잇을 마즈다 그는그則자의 靈魂을 바롯말이다」라는等의 자미잇는말이 만라。이러한말들을 나는 늘 생각하여서 어린때 저러었에 마치보구는 대단히 興味잇게 생각하다 이러것도 옛날이기는하나, 지금도 잇는말이니 새로운 興味가 생기는것이다。이것은 옛날말이 아니라 곳 새로운말이라는것이다。

옛날 希臘神話를 읽을때도한가지로 同一한興味을 갓게한다 그것은 사람의 外面生活에서相異한 形式을 말하는것이 아니라, 사람의 內面生活은 古今이同一한것을 意味하는것이다。

◇

古今의 風俗이 다르나 그情이 잣고 生活의外形이 다르다 그基本이 同一하니 예것을 보고옷러아지는것은 그情에서생기는일이다。그럼만이 아니라 藝術上價値로 보드라도 古今이업시 그 노픈것과 나진것을 알게되는것이니 時代가 다르고生活樣式이 다르고 社會制度이달러저서 그標準이古今에 相違한것이 잇다고 하드래도 그發行의 아름다운것이야 發行까되도업고 또한 그것을 變하게하여기지 안흔사람이누구라。

—◆◆—

新刊紹介

▲南鮮公論 第三十二號(月刊) 發行所晉州府榮町三四三 南鮮公論社 定價一部十錢

▲朝鮮農會報 第十二卷第一號(月刊) 發行所 京城府貞洞一〇三 朝鮮農會 定價一部六錢 振替京城三〇一三番

▲朝鮮臨床 第七十二號 (月二回)發行所京城府黃金町三ノ二一 朝鮮臨床社 振替京城一八三七二番 定價一部五錢

═文化時感═ 新協劇團과春香傳
李海卿

近來 東京에서 오는 新聞을 보면 新協劇團에서 春香傳을上演하기로되엿다고한다。어떠한理由에서 春香傳이 그러한 一流劇團의

重要한 레퍼ー토리의 하나로 選擇되엿는지 모르나 다 아는바와 가치 春香傳이란 形式的으로는 元曲의 模倣이란 演劇的 立場에서 볼때는 唱劇또는 歌劇에 屬하는것인데 이것을 近代劇으로 上演하자면 技術的으로 여러가지 努力이잇서야할것은 勿論이다。

그뿐만아니라 春香傳을 小說로改作한일도 잇섯고 또近代劇으로 飜案上演한일도잇섯고 심지어는 現代的 오페라로 上演한例까지 잇기도하엿는데 勿論 이러한 古典이 사람을 갈고 形式을바구어가면서 새로 吟味되고 다시 解釋되는것은 반가운일이라고 아니할수업는것이다。

그러나 春香傳의 改作이라든지 飜案이라든지 또는 上演되는것이 그意義란든지 作品에比해서 效果에對해서 一層 더 一般의 期待와 興味의 對象이되는것은 무슨까닭이냐하면 問題의 核心은 春香傳이라는 唯一한古典에 손을 대엿다는 그事實에잇다는것이다。다시말하면 普通 다른作品을 改作하거나 飜案하거나 上演하는것보담 春香傳 이라는 古典을 건드렷다는것이 一般의 注目을이끄는 原因의 하나이라는것이다。

그럼으로 春香傳이 改作이나 飜案될때 우리가 注目하는것은 그作者의 創作的力量이 아니고 春香傳이라는 古典을 現代化하는데 엇더한態度와 엇더한 技術이 드러느냐하는 다시말하면 春香傳을 엇더케 살렷느냐하는 그一點에 잇는것이다。그래서이때까지의 春香傳을 改作도하고 飜案도하고 上演한 例를볼것가트면 勿論 그意圖만든지그努力을 過小評價하는것은 아니지마는 그結果에잇서서는 滿足할만한 成果를 나타내지못한것이事實이엿다。그리고 이러한

結果는 어데서 由來하는것이냐하면 우에서도말한바와가티 春香傳이란 形式的으로는 元曲의 模倣 다시말하면 唱劇으로된것임으로 春香傳이 우리에게 古典的印象을 주는것은 그內容보담도 그形式에잇서서의 音樂的 要素에잇는것이다。그럼으로 이러한特殊한形式(唱)은 그形式에서우리는 古典的印象을 밧는것인데)을 떠나는데에 春香傳獨特한 뉴ー안스가 달리지는것이며 唱재는改作 飜案하는사람들의 春香傳時代의風俗習慣에對한調査程度問題이다。이러한 常識的인 誤謬問題를念頭에두고서 이번 新協劇團에서 上演하게된다는 春香傳이라는것을 생각해본다면 그結果를보지아니하엿슴으로 이러니 저러니할말할수는업스나 다가튼말로 改作하고 飜案을해도 때로는 春香傳獨特한 뉴ー안스가 빼저버린例가 만흐며 한말며 다른말로서 表現할때 이러한 困難한問題를 엇더케 解決하겟는가?新聞에는 張赫宙氏 原作이라고하엿스나 그것은 無識한소리이니 是非할것업시 張氏의 飜案인모양인데 春香傳을 飜案할때 春香傳의獨特한 뉴ー안스를念頭에 둘것업시 다만 李道令이 春香이와 사랑햇다는 內容만을 옴겨온것이라면 그것은 일홈만 잡아온것이니까 春香傳이 다른것으로 처음 上演된다는 意義 잇는 期待라는것은 본래부터問題될바도 업겟지마는 그러치안코 張氏가 어떠한 意味에서든지 春香傳의 이獨特한 뉴ー안스를 다른말로 옴기기에 努力하고 또한 그것이어느程度의 成果를엇는다면 우리는 張氏를 위해서 보담도 春香傳을위해서 기뻐하지아니할수업는것이다。

●隨想● 마음이짓는悲劇 (中)
李燦

여기 人間悲劇의 始初가잇잔혼가。나는서슴지안코 斷定하련다 그러나 적어도 現代人間의 悲劇의始初는 여기잇다고。

誓言할것업시 우리가 제각기 노혀진 現在의 處地와 環境과 그리고 우리아페 設定된 運命의길에 滿足하고 順應한다면 그무슨 焦燥와 그무슨 煩悶이 잇슬것인가。賦與된 現在의自己、그것의 默默한 延長은 적어도 나가는것에잇서선 平凡한 安逸을 約束하는 無難한 길임에 틀림업다。누가 苦難을 바라랴。즐겨 苦難속에 몸을 맥기랴。하것만 내마음은 아니 殆半 사람의마음은 그主格인 우리들의 귀를 이끌어 엇지로라도 平凡한 日常生活의 圈外를 翻然식히련다。

저기 理想이잇잔혼가。저기目的이잇잔혼가。저기 幸福된生活 참다운 人生의길이잇잔혼가ーㄱ고 들니는듯 마는듯한 가는 목소리로 그러나 眞摯히 頑强히 그길의 正當을 主張하면서。

바래보매 아득한 길、荊棘마저 얽혓스매 떠나려나 떠날勇氣업고 안떠나라니 마음의 성화를 견데낼수업고……어이하랴 이 焦燥 이煩悶을 무엇으로 이 괴롭을 하로한때인들 이저넬수 잇스랴。

나는 눈을 감고 생각한다。

얼마의 時日後 곳내 이苦悶 마음의 勝利로 도라가질때 그러나 敗北한 내몸도 곳내마음의 指示대로 나갈수도업고마는 때……

小說의世界
도기고 Cogito
巴朋生

讀者는언제가 小說이란文學的形式은 雜音이 가장만히 섞길수잇는『장르』라고 말한적이잇다。다시말하면小說의對象은 生活이란뜻이고 俱雜한 市井과 巷間이라는 뜻이다。

이것을 理論的으로따저서 말한다면 小說은 市民社會의 가장典型的文學形式이라는뜻으로된다。社會와 人間이 複雜化하고 分裂되어 職業은 專門化孤立化하야人間性은 歪曲되고 모든것이 뒤엉켜잇는 世相風俗의 混亂한 累積가운데서 眞理의實物을찾는것이 小說이다 時는 個人과集團이 原始的으로 統一되어 그곳에 사람의 感興이흐를때 곳바로 音律로 表現化할수잇는時代의産物이고 小說은 彼帶가『忠實을不信으로 愛情을憎惡으로 美德을惡德으로 惡德을 美德으로、奴僕을主人으로、主人을奴僕으로 無分別을分別로、그리고分別을無分別로 轉化시키는 至極히複雜한社會的時代에 發達한 藝術形式이다。詩가 새로운樣式에 依하야 改造되지안흐면 更生할수업다는것도 이것을말함이며 小說이 現實社會의 猥瑣한 分裂과矛盾의反映을 描寫하는곳에 維持될수잇다는것도 이것을 이름이다。

假令 李孝石氏를 例로든다면 李氏는 小說을감고 市井으로부터 書齋山으로다 갓다가 되이 落葉마저밟고 失敗한作家이다。氏의最近의傑作은 다시 市井으로 도로들어온다는 느낌을주고잇는것은 조흐나 아직 視野를넓혀 巷間에 몸을부치지못하고 途中에서 茶房을기웃거리는 느낌이 잇는것은 遺憾이다。『薔薇病들다』를 보면근대에 이러한小心的趣味의李氏가 눈에띄인다。할작오슬벗고 市民社會의渦中에 몸을던지랴。 이러한속에서 李孝石氏의 將來는 엇덜것이냐。

이反對의作家로는 例컨대 朴泰遠氏를 들어도조타。氏는 作家生活의心理的發展에서 故李箱과도 線近한듯하다가 (氏의仇甫의日記等의一系列) 斷然 몸을돌처 川邊的近으로 小說을發見하는데依하야 一步前進한作家이다。그뒤『手風琴』『扇蛇』等에서 다시 이것도아니고 저것도아닌 엷지기世界를 헤매는늣김이업지안흐나 氏는다시『川邊風景』에서 再出發해야할 作家이라고생각한다

이미 古人된 그들 東西의나馬孩가티 網膜을 사친다와가튼 만흔 젊은이가 生擬난다 칼모친네꼬이라즈、山、바다、絕壁、深淵이다。正히 이것은 한개의 喜劇한 悲劇이다。

小文庫 趨庭錄(二六)
고자의語義
袋山生

宦官을 爲始하야 그들과 가튼 不具者를 우리말로는 고사라고 하니 이 고자란 大體 무슨 뜻인가。或者 말하기를 고자는 鼓高의 子息이라는 高子로 처음에는 宦官에 對한 辱으로 부르든 것이 나중에는 고만 그들은 勿論이요 그들과 가튼 不具者 全部에 對한 名稱으로 되야 버린 것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果然 어느 程度로 미들 것인가。漢字로는 高子라고 쓰기보담 오히려 鼓子라고를 만히 쓰나 그역시

偶然한 取音에 不過한다 萬一訓蒙字會에 고자를 고자라고 쓴것으로 본다면 子字의 古音『즈』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者字의 古音『자』에서 나온것이라 볼것이다 그런데 宦官은 고자라고도 하는同時에 內侍라고도 한다。內侍라는 말은 宮女를 內人이라는 것과 마찬가지의 意味다。그러면 고자도 本是는 內侍와 가티 宮中에잇서서 어떠한 그들의 所任을指稱하든 것이나 아니엇슬까。넷날各郡衙에서 무슨물건이나 마련가지고 잇든 下隷를 庫子라고불럿슨즉 宦官들을 宮中의 庫子라고해서 고자라고 불렷든지도 모르겟다。그러면 訓蒙字會에서는 왜『고즈』를『고자』로 썻슬까。各郡의 庫子는 그대로訓音이 되지안함에 對하야 고자란말은『자』로訓音이 되얏다가『즈』와『자』의 音이 다함께『자』로 變함에 따라서 最近에와서는 또다시 同一한『자』音으로 돌아온것인지도 모르겟다。그러나 옛날에는 고자를火者라고도 썻다。이火字는 그訓으로써 爲音과 通하고잇다。아니 고자의 고는 곳睾丸의 睾字로서睾勝의 뜻이 아니엇슬까。그러키때문에 者字의音을 取하야넷날에는『고자』라고 읽든것이아니든가。鷄林類事의 高麗方言에는 僧人之子曰故作。樂工曰亦故作이라고 하고 亦故作이라는아래(多僧人之子爲之)라고 註를달어 노핫다 亦故作의 亦字는勿論 樂工亦曰故作이라고 한 것이 誤寫되야 그러케 된 것으로 僧人의 아들이 만히 樂工이 되기때문에 또한 故作이라고 한다는 뜻일것이다。그러면 이 故作은 또 어떠한 말인가。고자 乃至 庫子와 어떠한關係를 가지든가。各郡衙에서 물건을 마터가지고잇는 下隷를 庫子라고 한다고 함은 이미말한바어니와 水刺間에서 심부름하는 一種의 下隷도 고성자내지 고정자리라고 부르고 漢字로는 庫城子라고 쓴다 僧人의아들이나 樂工들이 만히 그러한 賤役에 從事하야 그대로 庫子라고 불럿든 것이나 아닐까고 疑心되는 點은 업지 안희 雖然을 하기에는 좀더 不充分하다。(趨庭錄終)

海西記遊 白川溫泉 (一)
朴泰遠

길을 떠나는데 時計점 하나 잇는것이 조흘께다。하지만 나는 元來 時計를 갓지안는다。時計를 갓지안는것은 그러나나만이 아니다。나의 아는 이의명도도 時計와는 因緣이 업다 册床머리에 一坐 美術時計가잇고 마루기둥에 掛鐘이잇기는하다。그러나 아모러한 나로서도 그러한것을 旅行에 携帶한다는수는 업는일이다。

新聞 생각에잠긴 나를 因固스러히 바라보다가 안해는 문득 느낀바 잇는드시 부리나케 장롱을 뒤저 一個의 큰통을지 팔목時計를 차저내엿다。그것은 그가 일즉이 學校를 다니든時節에 使用하엿든것인데元來살때에는 十年間이라든가 十五年間의保證을 바든것이엿다하나 산지二三年을 經過하지 못하야 자주 故障이 생기고 또 그時間이 매우 正確지 못하여 안해는 그使用을 斷念하엿든것이나 그것을 거의 十年가까히 지나는 오늘날까지 알뜰히도 간수하여두엇다가 떠나는날 가볍하게도 내여주는 내안해는 퍽히 귀모잇는 지어미라 안할수 업는것이다。

나는 無限한 感激속에 집을 나섯다。

×

土城서 車를 바꾸어 라고 白川溫泉서나린것이 午後 한時半 떠나기前에 李兄에게서 배운대로곳天一閣에 들엇다。

浴湯에 들어갓다 나와서 點心으로『돌보리』를 하나먹고亦是 李兄이 紹介하여준대로 朝鮮日報支局은 차젓다。나의記憶에 틀림이 업다면 그支局은天一閣에 至極히 가까워야만 할것이다。

『大體 어데쯤이 되오。한十里 떨어저잇는거나 아니요。』

떠나기前에 내가그러케 물엇슬때 李兄은 分明히

『아니야。가까워。여기서 遞信局앞 가기만 할까。』

하고 對答하엿든것이다『여긴』라는것은바루『朝鮮日報社』를가르처 한말이다。게서 遞信局아피면 참말 咫尺사이라 하게다 나는 마음에 매우 滿足하여섯다。

그러나 정작旅館을 나와 길가는이에게 支局을 물으니 邑內로 가보라 한다。

『邑內란 大體 어드메요。』

하고 물으니까

『바루 저기요。』

하고 까마아득한곳을 가르친다 遞信局이 얼로당로 안혼곳으로 移徙를 하엿스면 하엿지 爲先 그러케 멀수가 업섯다。勿論十里式은 가지 안는다。허지만한 五里——가까운 五里는 確實히 되엿다。

支局長 趙秉稙氏 차저 이곳 이야기를든고 夕陽녘에나와 支局의少年이 案內하여주는대로 南山엘 올라갓다。山이라야 勿論 조그만 언덕에 지나시 안는다。殺或 봉이나 가수니든라도、關東瓢亂가 조라든 그러케 생각할수는 업는 그곳이라 때마침 겨울에 오속 索漠하고殺風景할 따름이다。

한 조고만 亭子가 잇서 文武亭이라 일은다。只今도 射亭으로 使用되는 모양이다。亭子기둥에 글한句가 걸려잇다。그한句에 가로대、

『일업는사람은 근처에도 오지마시오』

『근처에도』란、매우 다붓친것現이라 아니할수업다。勿論、언덕우에 저녁바람이 차서、그것이아니라도 더잇고십지 안헛다 少年과 헤여저서 나는 다시 旅館으로 돌아간다。

×

밤기과 감작이 바람이 크게 일른다。머리마테 노아둔 時計를 집어들고보니 새루 한時가 넘엇다。그時間이 얼마나 正確한지는알이날道理가업지만 쉬지안코 가는것만은 確實하다。그러나 그러한時刻에 잠을깬것은 죠을 흔드는 바람소리때문만이 아니엿다 나의 배속의 不安이 좀더 컷든것이다。자기前에 食堂에서 食事바덤은것이 가득이나한 내뱃속에 탈을 또 잘든것에 틀림업는것이다。나는 가방속에서 龍腦丸을 내여 열다섯알을 입에 너코 다시 자리에 들어갓다。

그러나 아츰녁아침 朝飯을 먹으며 내가 이말을 하자 床머리에 안젓든『조무ー』가 손님은 元來 胃腸이든튼하시지못한것이나아니냐 한다。그것은 事實이다하엿더니 得意滿面하여

『그럼、溫泉물이 藥이되서그러첨니다』한다。그의 說明에依하면 이溫泉은 特히胃腸病에効驗이잇서 누구든 消化가 不良한 사람은 처음에 반드시 배탈이 한번크게 나고 다음에낫는다한다。그러키 하느라고간밤에 복걸것이라면 작히나소호랑。

月의盈虧를따러오는 生物의生殖現象 (上)
一記者

달의 盈虧가 이상하게도 動物의 生殖現象과 무슨 關係를 가지고 잇다는 것은 녜전부터도 이미 여러사람에依하야 指摘되야 온 것이다。아조 오랜 녜적에는 아리스토텔레스때 시세로、루시리우스、푸리니等도모두 그런 現象을 말하얏고 五世紀頃에는 聖아구스틘도 달과 海膽에 對하야 特히 그러한現象을 記錄하얏다。오늘날까지 動物로서 月의 盈虧를 따라서 一한 生殖現象을 表示함이 잇는것은 約 三十種의 動物이요 그中에나 모다 海産動物이요 下等動物이다。即 腔腸動物、環形動物、軟體動物、棘皮動物이며 高等의 動物로는 魚類에도 若干 그러한 點이 보이고 잇다。

月齡에 따라서는 人間의 出産과 月經現象에도 關係이기는하나 달과 相關現象이 잇슴을 發見하고 잇다。軟體動物의 要이라는것이나 棘皮動物의 生殖이라든지 어느것이나 卵巢 또는 精巢內의 生殖物의 成熟이 달의 滿月時 또는 新月時에 應하야서 週期的으로 變化한다。

例컨대 英國 푸리마스에서 產出되는 棘皮動物의 조개中 一種은 一月로부터 六月까지 生殖期間中 滿月의 때에 排卵하는것이만코 歐洲産의 몹도十五夜에 그排卵現象이 最高潮에 達하다 또棘皮動物로는 스에스에서 産出되는 강가제의 一種이 生殖物이 排出되고있다 그러나 七月八月九月의 滿月을 除하야 新月 또는滿月의 夜半의 출花해서 가이언는 海上에 헤처저지는 팔로로라는버러지의 群舞야말로 가장 興味잇고 신기한 現象이다。

팔로로(Palolo)라고 하는것은 本是 퓌지島附近의 土人의 말로로(Mbalolo)라는 말이 訛傳된것인데 그것은 多毛環虫類에 屬하는 버러지다。이버러지는 成熟하면 生殖物로 充滿된몸의 前體部 또는 後體部의 體節이 끈허저서 生殖時期에는 바다의 表面에 떠올라가지고 헤엄처다니는것이다。

그러니까 一匹의 虫되는 버러지를 팔로로라고 이름지은것으로 이전에는 그一部分의 個體를 完全한 것이라고 생각하야다가 前世紀末葉에서야 비로소 팔로로現象의 全貌가 判明된것이다。(寫眞은 珊瑚礁의子虫)

今春各學校入學案內 (二)
(詳細는該校에直接問議)

—【二】—

咸鏡北道立□興□□看護婦養成所
一、募集人員 給費生十六名自費生若干名
一、試驗日字 三月二日까지
一、試驗場所 道立醫院看護婦養成所

春川公立農業學校
一、試驗科目 國語 算術
一、募集人員 約七十名
一、申請期日 二月二十五日까지
一、試驗日字 自三月十二日至三月十六日
一、試驗科目 國語 算術
一、試驗場所 同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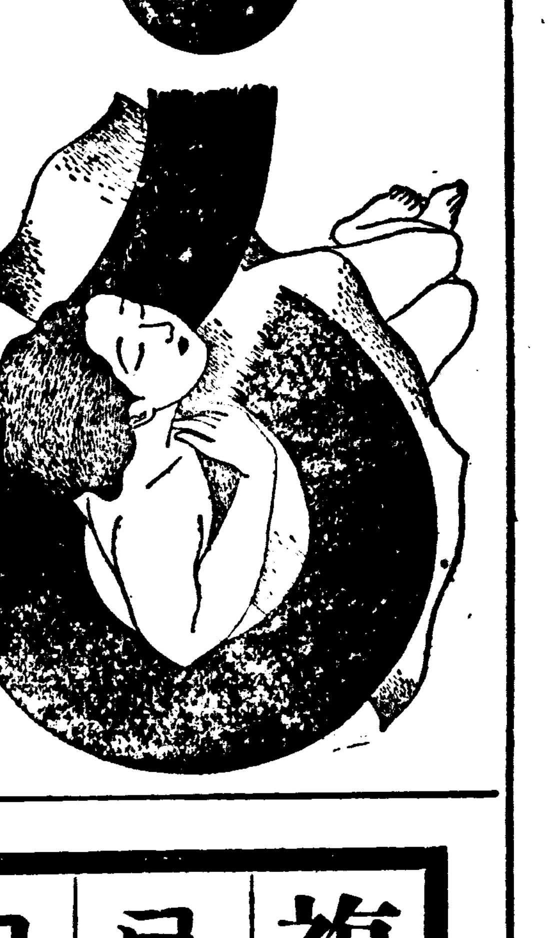
沙里院公立高等女學校
一、募集人員 約五十名
一、申請期日 三月十日까지
一、試驗日字 自三月二十二日至三月二十三日
一、試驗場所 同校
一、試驗科目 國語 算術

平壤公立農業學校
一、募集人員 約百名
一、申請期日 二月末日까지
一、試驗日字 自三月十二日至三月十七日
一、試驗場所 同校
一、試驗科目 國語、算術

安州公立農業學校
一、募集人員 約五十名
一、申請期日 三月五日까지
一、試驗日字 自三月十二日至三月十六日
一、試驗場所 同校
一、試驗科目 國語、算術

京城女子實業學校
一、募集人員 男、女約各五十名
一、出願期日 三月二十九日까지
一、試驗期日 三月三十日、三十一日
一、試驗科目 國語、算術
一、試驗場所 本校

江界私立英實學校
一、募集人員 一學年 五十名
一、申請期日 三月二十日까지
一、試驗日字 至三月二十四日
一、試驗場所 同校
一、試驗科目 國語、算術、口頭



弱質男子의好機會
女人征服의補强工作法大發見
性的能力衰退・性慾機能障害
速時增進大强化藥
キング・オブ・キングス
動植物純性호르몬主成分劑
빨리듯는 第一速한 回春藥

臨床實驗報告로藥効가證明된 本劑의成績實例發表
醫學博士 河合峻策

男女生活의障害
우리의人類가 地球上에 生存하야 生活해나가는가운대에서萬若件慾을無視한다면 그것은 人類의發展을막는것이며 進步를害케하는것이오 또는 男女가어떠한연분으로 因緣을맷는때에는微妙한愛情과無限한幸福感에 陶醉케되는것도 그모도가 兩性間에完全한性의結合에서 생기는것이므로 男女間의性生活은 어디로본지人生의莫大問題이며 絕對로소홀히 생각할일이아니니 自己의性에對하야 조금이라도缺陷을느끼어 性生活上에 障害가됨을自覺하거든 하로바삐 回復되도록强性에힘써주기를바라노라

余의發明藥으로 青春期를延長시켜라
醫學博士 羽太銳治
最近 生殖機能障害로因하야 性的疾患에 煩悶하는者가 점점增加됨은 참으로寒心할事實이다 極端으로 말하자면 現代의 靑年、壯年、初老者는 그全部가 性的神經衰弱에걸렷다고해도 過言이아닐것이다。이와가티 大多數의男子가 恐衰에싸인몸으로 不幸한無氣力의生活을하며 不快와焦燥로 그날그날을 지내는것을볼때에는 더욱痛嘆不己한다 余는 學究的良心과專門的立場에서 이에對한 特效療法을 多年間苦心硏究하다가 幸히動、植物의性호르몬을 主成分으로하고其他化學藥品의藥理的配劑에 成功하야發明한것이『キング、オブ、キングス』인바 本劑는 生殖機能을刺戟하야 性的活力을 惹出케하며 性神經系에 興奮을 與하야 神經官能의恢復도 誘導하야性行動의目的을完全遂行케하는藥效가잇스므로 吾人生體의青春期를延長시킬수잇는것을 斷言하야 마지안노라。

實例第一 野口某(三十九歲)
右患者는 一種의變態性慾者로서 賣春婦及娼妓와 交遊時에는 勃起力이 普通이나 家庭의 妻와接하려면 그만 縮少해저서 不能케되는고로 허는수업시 氣分이 不快하나 不潔한데出入하야 滿足을채운다는것이다 余는 即時로生殖器를 診察해엇스나 別로히異狀이업슴으로 곳キングス를每日(一回五粒)五回式服用시켯든바 五日만에는陰莖勃起力이달러젓다하며 家庭의妻와도圓滿한交情을 이루게되엇다하야 投藥한 余도 자못놀래엿다。

實例第二 佐藤某(廿七歲)
右患者는 過度의性神經衰弱에 걸려不眠症으로 呻吟하며性慾은 昂進되나 陰萎로因하야 目的을 達치못하고 茫然自失해진다하며 其翌日에는 疲勞與困하야 臥牀케된다한다 余는每朝 上半身冷水摩擦을 命하는一方 キングス를 每日四回(一回六粒)式服用시켜보앗더니 三日만에는 心身이爽快해젓다하며 그날밤 비로서夫婦同寢時完全한目的을達하는同時에 滿足感을어덧다하고 睡眠도잘오게되엇다하야 大端히 기뻐하엿다

實例第三 今井某(六十五歲)
約一個月前까지는 後妻인三十四歲의夫人과 不滿은感하면서도 간신히 交情은 대든것이 現在에는아주不能狀態에 빠졋다는것을 呼訴하엿다 余는 곳全身을診察해보니 榮養、身體共히 普通以上의所有者이나 老衰의現象으로 勃起力이 弱해진것이 判明되엇다 余는キングス를 每日六回(一回五粒)式服用을命하엿더니 一週日後에는 前에업든强大力으로 目的을完全히達햇다云云

實例第四 原田某(四十九歲)
極度의早漏症으로 妻에게滿足을주지못해 家庭이 不和하다는 것이 哀訴의 理由이다 余는キングス를 每日三回(一回七粒)式服用시켜보앗든바 一日後에는그러케苦痛을밧든 早漏가따곳처지며 妻에게도滿足을 주게된것이 自己로서도 確實히알겟다하며인저는 家庭이不和롭게되지안켓다하는데는 敎授도놀래치못해섯다。

注文은直接本舖로
キングス는 快速의作用으로 氣分으로 興奮狀態에빠지게해주고 性의不滿으로 人生無上의快樂을 모르고 지내시는분은 靑年、中年、老年을勿論하고 キングス가 잇는以上은 꼭試驗해보시오니 服用하시려는분은 조금도주저마시고
送金은 振替、또는代金引換便으로注文해주시면 至急送藥함니다 送料는 四十七錢이오나十五錢만負擔해주십시요。
藥價 小瓶一〇〇粒二圓 中瓶二八〇粒五圓 大瓶六〇〇粒十圓
東京市芝區濱松町十三ノ一 總代理店 合名會社 春泉堂 (振替東京七七一番)
各藥房에서販賣치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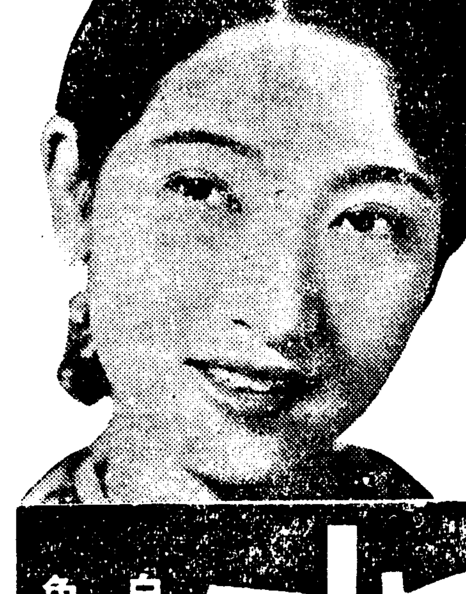
粒子에 훌륭한 新研究!

(1) 본살에 빗나는 듯이어여뻐게 발라지고
(2) 近代的인明朗한色味!
(3) 時間이지날수록 一層더어여뻐짐

이複合粒子의 훌륭한化粧力을꼭한번試驗해주십시요!

複合粒子로 미끈하고 곱게 발라지는 水白粉

明色美顏水 白色 肌色 濃肌色



明色白粉 明色固煉白粉
複合粒子로 미끈하고 곱게 발라지는 白粉!
白色 肌色 濃肌色 黃色 / 白色 肌色

洋畫在庫品不足과 市內常設館의焦燥
封切을豫約하려고 暗中飛躍하는各館

輸入禁止中의 洋畫는 新春以來 스토크가 急減되여 文字그대로의 品不足에 直面하야 興行界에 一大恐慌을가저왓다

輸入禁止는 當分間解消될비쳐보이지안코 興行은 이것이아니고는 到底히 觀客을 誘致할수업는 形便이므로 市內의各常設館사이에는 洋畫爭奪戰이 일어나고잇다

朝鮮에 配給機關을둔 洋畫의主要한것을 들면 파라마운트 二十世紀폭쓰 콜럼비아 RKO 메트로골드윈 워나―쇼날 유나이테트 유니버살고―몬부리티스 그리고 歐洲映畫의 三映社와 東和商事等이잇는데 이가운데는 一二三本의스토크바게업는 곳도잇고 만히잇서야 二十本內外의것인데現在 配給社와 常設館사이에옴직이는 現勢를살펴보면 三映社와 유나이테트메트로골드윈全部와 폭쓰 RKO一部分이 明治座와契約이되고 東和商事와 파라마운트워―나全部와 RKO一部가 黃金座에 가기로決定되엿다.

그나머지 若草劇場은지금現狀으로보아서는 유니버살 一社의것을 獨占할다름 달리손을빼칠길이 업서서 허우덕거리고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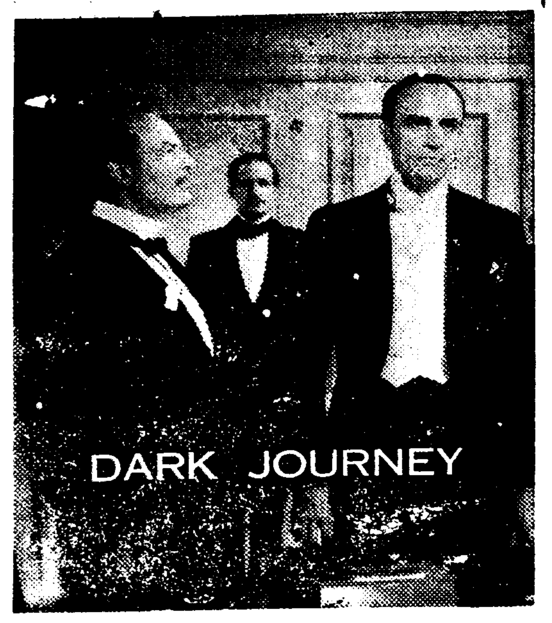
아프로 常設館의 死活을左右할것은 이洋畫의數가 만코나 적으나 하는데 달엿스므로 벌써오래전부터 各館이暗中飛躍을 하는나머지 요지음와서 以上과가티 決定을보게되엿스며 中間에 確乎한態度를 取하지안코 잇는配給者側에서는 아프로 洋畫賃貸料가오를것을 豫想하고 有利하게이것을 코트롤하랴는것인데 將次이것으로 말미아마 興行街에 엇더한 變動을 가저올지 興味잇는일이다.

朝鮮映畵『沈淸』 하와이서上映

市內鍾路三丁目 파라마운트映畫朝鮮總代理店 紀新洋行映畫製作部 第一回作品 安夕影監督의『沈淸』은 朝鮮映畫海外進出의 第一步로『하와이』에 輸出하엿는바 이『沈淸』에 하와이의 興行王이라 稱하는 米國映畫娛樂會社 總支配人의 斡旋으로 二月七日부터 晝夜二回로 하와이『리리하』座에서 封切上映中으로方今 一般의 好評을 博하고잇다는바 朝鮮의 美風良俗과異彩잇는 아름다운 情調에 이『沈淸』一篇이 驚異의 對象이 되고잇다한다

유社特作『間諜』 市內明治座封切

市內明治座에서는 마―사·웜베리스原作이고 빅터―·사빌르監督인『間諜』을 오는 十六日부터 二十日까지 封切하기로되엿다。(寫眞은 同映畫의 一場面)



커트說明 샤르르·보아이에

十四日 (月曜)

◇午後六時講話와唱歌 一、講話『國民精神總動員』 二、唱歌 1、齊唱 海ゆかば 2、輪唱 卿旋 3、合唱 愛國行進曲 齋洞公普校長 朴 勝 斗 齋洞公普校五六年生 伴奏 笠 秀 郞

◇同六時二五分 어린이新聞

◇同六時三〇分 (平)講演『時局再認識과우리의覺悟』 平南道參與官 金 秉 泰

◇同七時四分 ―國民精神總動員强調週間第四日―『近代戰과國防』 朝鮮軍參謀陸軍步兵大佐 岩崎 民男 (通譯 沈 友 燮)

◇同八時 俚謠 一、愛國行進曲 二、日本陸軍 三、雪の進軍 四、勇敢なる水兵 五、千人針對(獨唱)……朴景嬅 六、軍艦行進曲 七、婦人從軍歌 合唱 景明合唱團 伴奏 DK管絃團 合唱指揮 朴 景 嬅 管絃樂指揮 洪 蘭 坡

◇同八時三〇分 野談『五氣湯을進服』 申 鼎 言

◇同九時 音律 靈山會相中에서 本靈山 中靈山 잔靈山 가락 도도리 三絃 朝鮮正樂傳習所員

第一放送

◇午後六時(東) 時吟
◇同六時二五分(東) 支那語
◇同七時三〇分(東) 講演
◇同七時四〇分(城) 講演
◇同八時(東) 謠曲
◇同八時三〇分(大) 哥樂歌
◇同八時五〇分(東) 講談

十五日 (火曜)

◇午後〇時五分 古談『公州牧使』 申 澗 居

◇同一時一五分 婦人時間『母性愛로서의婦人』 許 永 淳

◇同六時 童話『시골쥐의서울구경』 白 南 勳

◇同六時二五分 어린이新聞

◇同六時三〇分 (九)復習時間 威 瀏 默

◇同七時四〇分 講演 ―國民精神總動員强調週間第五日― 南 善

◇同八時 라디오드라마『꿈』 延飼年譯 配役 에레나 南宮仙 스미루노후 孟萬植 徐成大 効果 中央舞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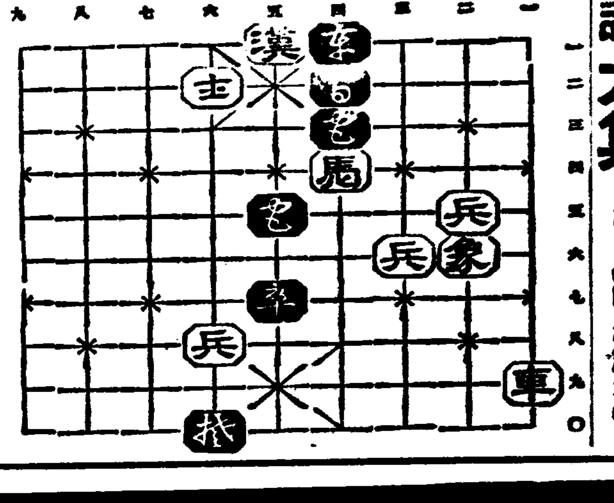
◇同八時三〇 一、散調 가、진양조 나、중모리 다、자진중모리 二、倂唱 가、短歌 竹杖芒鞋 나、唱劇調 沈淸歌中 沈奉事가 눈뜨는데 丁 南 希

◇同九時 管絃樂 丁 元 燮 一、祖國의소리 (獨逸行進曲 泥成曲) 二、봄에…그리그作曲 三、南國의꿈 아서마―己作曲 四、멜로디 F調…루빈스타인作曲 五、아이―다行進曲 베르디作曲 DK管絃團 指揮 洪 蘭 坡

第一放送

◇午後〇時五分(東) 佛敎音樂
◇同六時(城) 이야기
◇同六時一五分(城) 講演
◇同七時三〇分(東) 講演
◇同七時四〇分(大) 講演
◇同八時一〇分(城)
◇同八時三〇分(東) 新日本音樂
◇同八時五〇分(東) 浪花節

◇博譜大集 82 【昨題解答】



四―三哞將 六象―三六 三車―三五將 三漢―三六 五車―四打將 六馬―三三 三包―三四哞將 六漢―三三 三車―六包將 三馬―三四 六車―四三哞將 楚勝 (博譜係)

黑의一時誤着은 不小한自家破滅
三 玄 子

黑一六五卯의一八은 缺할수업는 應手이오 白一六六未의一八이 右邊上隅의 黑戶中으로 突入함은 까닭을알수업다 그는後宮三處가 열리고잇스니 잡기는姑捨하고 비길수도업는대 그러타고 先手도 保障할수업스니 先手의必要가업는陣法을사舍수업는以上 이誤着은 言語道斷이다 黑一六七申의一八 白一六八午의一八 黑一六九午의一七 白一七〇巳의一八 黑一七一寅의一九 白一七二丑의一八은 通常酬應이어니와 黑一七三 卯의一九는 白一六六未의一八보다도 甚한誤着이다 우에서말한바와가티 黑地는 後宮三處가잇슴으로 그대로바려두어도 비기박게아니하니先手를빼여 巳의一一에 두든지 그러지아니하면 未의一九로재처 兩劫을지어 十戶를保有하든지 할것인데 이제그도저도인코 卯의一九에두어先手를바리면서 白家九戶를 自滅하는것은 너무도 憫然한일이아니냐 그리고 黑이卯의一九에두지안코 그대로바려두면 비기고 黑이 未의一九로재치면 兩劫이되여 사는것을 圖示하면 左와갓다

別圖其一 파가리 黑이先手하면 黑一未의一九 白二午의一九 黑三辰의一八 白四申의一九(黑一點을取함) 黑五申의一六 白六巳의一六 黑七巳의一九 白八辰의一九(黑一點을取함) 黑九卯의一九로 兩劫이되여 黑은丑의一九및 申의一六의 後宮이 둘이 열리고잇는까닭에 그丙部의 白五點을取하야 生한다 또 白이先手하면 別圖其二와 가티 白一未의一九、黑二巳의一九、白三辰의一九、黑四辰의一八、白五申의一六、黑六申의一七、白七巳의一六、黑八卯의一九(白一點을取함) 白九丑의一九가되여 비기고 또 白은 先手를빼진다 그럼으로 黑一七三을 卯의一九에 두지말고 巳의一一에 두엇스면 右邊中央에서 能히 十數戶의白戶를 破壞할수잇다 그러나 白은 右邊上隅의 黑戶에 下手치못한다 어째그러나하면 그의黑十戶를 滅하다가 다시先手를 빼기게될으로써이다 그러나이제 黑은 그리되못하야 게도 일코 바구니도일어 到底히回復할수업는 致命傷을 當하얏다 白一七四巳의一九 黑一七五未의一九 白一七六申의一六 黑一七七申의一七은常例의酬應이오 白一七八巳의一一로 조흔자리를 占領케된것은 요행일뿐이다 黑一七九寅의一三과 白一八〇巳의一六은 當然한 布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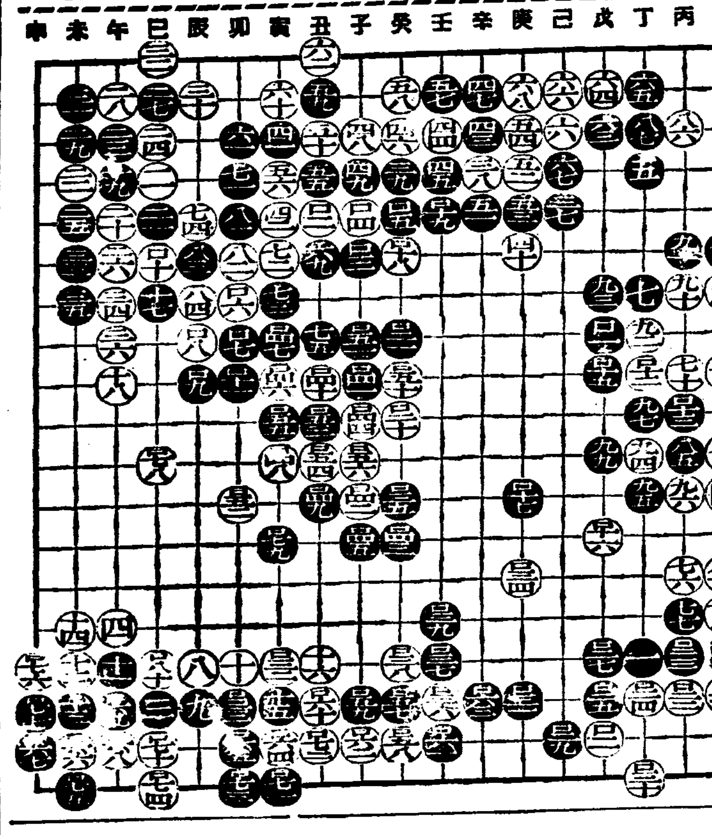
本社獨占

國手爭霸譜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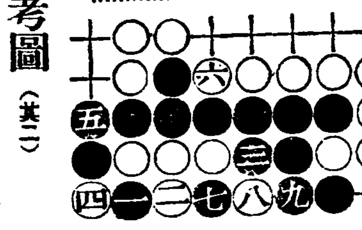
白 盧 史 楚
黑 任 佑 植

●一六五 卯의十八 ○一六六 未의十八 ●一六七 申의十八 ○一六八 午의十八 ●一六九 午의十七 ○一七〇 巳의十八 ●一七一 寅의十九 ○一七二 丑의十八 ●一七三 卯의十九 ○一七四 巳의十九 ●一七五 未의十九 ○一七六 申의十六 ●一七七 申의十七 ○一七八 巳의十一 ●一七九 寅의十三 ○一八〇 巳의十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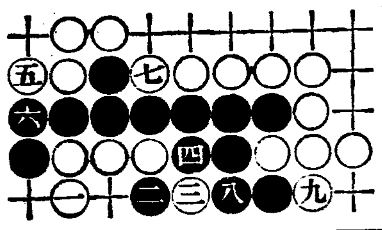
…死點… ●一二七 巳의十二 ○一二三 丁의一 ●一二四 巳의五 ○一二一 丑의九 ●一四四 寅의九 ○一五六 壬의十七



參考圖(其一) (黑先手로사는그림)



參考圖(其二) (白先手로비기는그림)



懸賞金
一等 一人 五十圓
二等 一人 三十圓
三等 二人 十圓
佳作 五人 各薄謝進呈
(但賞金以外의 後版權은本社所有에屬함)

現代의 文化領域에잇서서 그重視한 大衆性으로보아 流行歌는 거의 時代의寵兒인 느낌이잇스나, 不幸히도, 이때까지의 流行歌는 그詞와 調가 함께 頹廢低俗한것이엇음으로 一般識者의 慨嘆한바이엇는데 本社에서는 이러한 風潮를 一掃하고 새로운 流行歌의 出現을 促進하기위해서 어제 溥天下同好者들에게 淸新淡刺한 새流行歌를懸賞으로 募集해서 널리 廣布하려는바 이뜻에 同意하는분들만히 應募하기바란다

應募規定 一人三篇以內
應募期限 二月二十五日까지
審査方法 本社學藝部擔任
(注意)―投稿는 本社學藝部로하는데 封皮에 懸賞流行歌라 朱書하되 落選原稿는 一切返還치아니함

朝鮮日報社學藝部

모루히네 モルヒネ
헤로인 ヘロイン 고데인 コデイン 아편 阿片
其他鹽類中毒患者에二
FUSUSEN 福壽仙 후―스―센

優秀、低廉한 福壽仙의 作用及特長

一、當局의 最高方針에따라近代科學의精粹를다하야 技術上不可能이라고한것을 弊社에依하야完成한最新의優秀製品입니다
一、其作用에잇서서『모루히네』『헤로인』『코데인』其他鹽類와同一한症狀에잇서서作用하고使用者에게정말滿足을주고 또中毒症狀을낭기지안슴니다
一、何等의苦痛을隨伴치안코 順次그抑壓에引導합니다
一、價格은實로 低廉합니다 以上모든 點에잇서서絕對他의追從을不許하는優秀한製品인故로中毒患者의 一大福音으로서 推奬함

適應症 모루히네 헤로인 고가인其他鹽類의中毒 아로가로이도誘導體痲藥必要로 하는모든경우 鎭痛 鎭靜 鎭咳 鎭痙 手術後의疼痛緩息

用法及用量 一回一、五cc皮下又는筋肉에注射함 一日數回注射해도何等副作用업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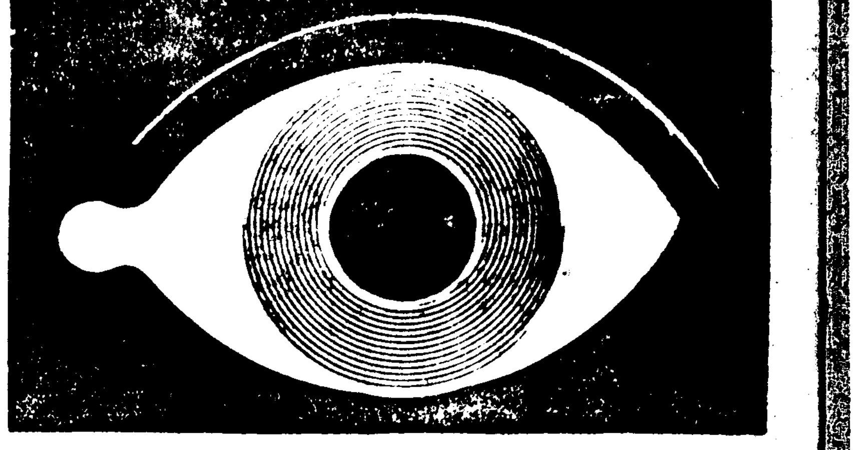
特約店募集
特約販賣를希望하는분은送料及雜費로서金五十錢切手封入申込하시옴 試供品을一箱及特約店規定其他文獻을送呈함 朝鮮日報에서보앗다고記入해주시오

價格

包裝		價格
一、五cc	十管入	壹、〇〇
一、五cc	五十管入	四、五〇
三〇cc	瓶入	壹、八〇

製造元 株式會社 大阪製藥公司
大阪府布施市下小阪六六四
電話 (南七一八八番) (布施三四五番)
振替口座 大阪一七五八番 京城二七四四五番 台灣六七七四番 大連一八八四番

SMILE



그리고 寸刻의休養도업시 酷使하는것도眼이다!
먼저眼을慰勞하라
眼疾을막으라!
스마일을 常時愛用해서 諸君의視力陣營을確保하라

모든職務의推進力은眼이다

醫學博士 中村 林先生 醫學博士 仁藤隆作先生 推奬

定評잇는新眼科藥

마스일은 新銳한眼科藥으로서 定評이엿습니다。그優秀한 殺菌、收斂、消炎作用은 結膜炎、角膜炎、도라홈、眼精疲勞等을 快히治療시키는 同時에 不快한 眼內의充血溷濁을 除去해서 視力을 明快히하는 健眼作用을가지고엿습니다

スマイル
스 마 일

二十五錢 四十五錢
藥店 百貨店에잇슴

總代理店 東京·大阪
株式會社 玉置商店

中部版

開城에 盜電盛行 一夜二百件發見

防止에 頭痛알른 西電支店에서 調査班常設코 團束

【開城】 서선합동 전기주식회사 개성지점(西鮮合同電氣株式會社開城支店)의 조사에의하면 요즘개성부민중에는 겨우 십촉전등 한개사용하는집에서 이것을리용하야 ── 촉광(燭光)을 변경해사용함은 물론이고 심한에잇서서는 『라듸오』 가설전등연장가설─또는 전열(電熱)을 몰래가하는 『아이롱』 『곤로』 『고다쓰』 등 가지의 도전(盜電)행위가 너무심하야 도저히방임할수업는현상이라한다 그래서 지난십일 동회사에서는 사무원 직공들을총동원시켜서 도전적체에 비상선을드리고 적극적으로 취체하얏든바 놀나지마라 하루에 도전사용자이백건을 발견케되는동시 도전증거품을 산가리 압수해오게되엿다한다 그리자 그이튿날밤은 갑작스리 사실키로의 전력이 감소된현상을 보엿다는데 이것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이천원이나되며 보통 십촉전등으로 계산하면삼천이백여등의 다수에 달한다 매일밤이가리 막대한 손해를보고잇는 동회사에서는 금후로는 전등조사반을 상설배치해두고 주야경행으로 도전취체에 맹렬한활동을 계속하리라한다

盜電行爲는 教育上惡影響

支配人 禹哲熙氏談

도전이란어느지방에나 잇는일이나 리재(理財)術에 약빠른 개성부민중에 더욱 심한듯합니다 우리회사의 리해만 게를 떠나서라도 자제들을교육시키는 가정에서 그롤이보는데 공공연히 도전행위를감행함은 무언중도벽성(盜癖性)을 키우는 위험이잇다는점을 어찌 부모네들이 생각못하는지 모르겟습니다 그리고 취체를 당할때는 대부분이 아이드리 그래다고 자식에게도 적대를 뒤집어씨우려하는 그들의심정이 실로 알밉다고아니할수업습니다 운운

漁業者協議會

京畿道에서開催

지난십일 오전열시부터 경기도에서는 명년도예산사리사업계획에관하야 도내각군어업조합(漁業組合)리사(理事)와 도어업조합연합회리사장과 도자공피근기 자가모히여서 협의회를 열엇다

洪川公普優良兒童 江原道知事가 表彰

【洪川】 홍천공립보통학교(洪川公立普通學校)에서는 기원가절을 복하야 지난십일일 성대히식을 거행한후 뒤니어서 강원도지사로부터의 우량아동표창장을수여하엿다는데 동일에 우량아동표창을받은아동은 남녀합두명이라는데남자 육학년 홍용(洪用)(一二)과 녀자육학년 정월행(鄭月幸)(一七)의 두명이라한다

매 홍천군수(洪川郡守)로부터 각수상자에게 표창장과 상품의 전달이잇은후 정중한훈화가잇섯고 이어서 도회의원김준덕(金俊德)씨와 영흥호경찰서장신혜공(新井公)씨의 감격에넘치는 축사가 잇은다음 군자면서기장순흥(張準鳳)씨로부터 수상자를대표하야 답사가잇고 폐회하엿다고한다

東川面三溪里(會長李錫道) 君 千面書百里更生部落指導者張享鳳 東面安峯里更生部落中堅人物成賢福

江原道新年度豫算 六百九十二萬圓

比前年百四十萬圓增

【春川】 약진강원도(江原道)는일취월장지세로 비약적발전을거듭하여 도정(道政)각부문에 괄목할진전을 보이고잇스며 이에 반하여 도예산(道豫算)도 연년히 격증의일로인데 지난칠일 십삼년도예산을 칠백십사만칠천원이라고발표하엿스나 그후 총독부의 지시로 이재민구제자금(罹災民救濟資金)을 특별히게로 취급케되여 십일오전 화정적 수짜로 라는 방대한예산을 발표하엿는데 전년도예산오백육십만원에비하면 백사십만원의증가를 보게되엿스며 청유과과(各課)의요구액에비하면 백팔십만원의 감액을불면하엿다고한다

金浦時局講演

【金浦】 지나사변발발이후로 김포군에서는 일반군민의 시국에대한인식을 철저히 알려주기위하야 여러번의 시국강연이잇섯는데 시국은날로 변천하여가는 이때에 그변천의상황을 일반에게 계몽하기위하야 인식시켜주는것이 절대필요하다는 다시발한것으로 니와 이번에는경기도회의원조병상(曺秉相)씨를 초빙하야 오는 십오일오후 한시부터 김포공립보통학교강당(金浦公立普通學校講堂)에서 시국강연을 개최하기로되엿다는데 그날에는일반은경각전에 만히참가하여주기를바란다고한다

愛國機江原號 廿一日命名式

春川高普運動場에서

【春川】 지나사변에반영된 일반의애국열은 각방면에반영되는바 적지안는데 강원도민(江原道民)의 애국열의성과인 보국제일배 육십오강원도호(江原道號)해군비행기의 명명식은 지난십일고 하엿다함은 기보한바어니와 오는이십일일오후두시부터 춘천고보(春川高普)운동장에서 애국비행기(愛國飛行機) 조선강원호(朝鮮江原號)륙군구오식(九五式)전투기(戰鬪機)의 명명식(命名式)을거행할터인데 당국으로서는그 준비에 급급한중인데 당일에는 강원호(江原號)가 당지까지날러올터이라하야 일반은그날의성황을기대하는중이며 그날의순서는 다음과갓다한다

開式 一、國旗揭揚 一、國歌合唱 一、宮城遙拜 一、獻納辭 一、獻納書提出 一、受納書提出 一、命名 一、祝辭 一、祝電披露 一、壯途祝賀之歌 一、萬歲三唱 一、閉式

紀元節祝賀會 洪川初有盛事

【洪川】 전시체제하에 마지한기원가절에당하야 헌법발포오십주년기렴과 국민정신총동원강조주간의 제일일이므로 홍천에잇서서 처음보는성대한 식전이잇섯다 지난십일일오전열시경홍천신사에 각관공서원과 지방유지각학교 아동 소방조원의다수참렬하에 엄숙하게식을 거행한후뒤니어서 일장기에 장사진으로시내를 일주한후 홍천면주최로홍천공회당에서 축하연이잇슨후 무사산회하엿다

紀元節奉祝式

【平康】 기원절과 헌법발포오십년축하식은 지난십일일오전십시에 평강신사압에서 관민유지생천여명이 다수참가하야 엄숙히 진행하얏다 홍히평강최군수(平康郡守)부전서장(富田署長)으로국민정신총동원(國民精神總動員)제이회강조주간 제일일에 당함으로 기원절의 숭고한의를 會하고 다시한번 헌법발포(憲法發布)오십주년에 당하야 제국국민은 내선일여(內鮮一如)여하시국극복(現下時局克服)에매진하야 할은(自覺)에 롱보치안으면 안된다고 호지하고 만세삼창 동시폐식을 종요하엿다

平康牛大量需要

內地와滿洲로부터注文

【平康】 평강군민이 갈망하든이출우검사소(移出牛檢查所)설치가되자 내지 만수 방면으로부터 축우(畜牛)주문이 살도(殺到)한다함은 본보에 이미보도한바이니와 지난일일시장에는원산(元山)소고기 『간즈메』공장(工場)에서 평강장에와서 소사기시작되야 크고살진소로 이십여두를 사가다는데 아프로계속하야 장날마당 사러온다하며 도지납판다

일에는 멀리 만주국명월구(滿洲明月溝)에서 축우백두의 주문과서 군당국에서는 주문받은도살 사기에 분망중이며 종소상인들은 각처로부터모혀와서 대호경을 이르키는바 평강우시장은 신년을마지하야 크게번창하여젓는데 이와가튼 대규모(大規模)의 이출우(移出牛)는 평강시장이 생긴후 처음이라고한다

更生部落中堅人物 始興郡에서도表彰

【永登浦】 시흥군(始興郡)에서는 지난십일일 기원절의가일을 복하야 동군회의실에서 판민유지

"무쇠먹는"불가사리" 仁川署에서一網打盡

取調에따라서는餘罪도만흘듯

【仁川】 무쇠먹는 불가사리 일망타진! 지난십일 오후두시에부내항정(港町)부여조합(貿易組合)압부산환(釜山丸)에 적재한선철(銑鐵)을 절취하여 도주하는것을인천경원이 발견코 체포하여취조한결과 이자는 거주부정의성석순(成石順)(三0)으로 판명되엿는데 이것을비롯하야 동일오후네시에 전기창소에서 석천을절취한 강영태(康英泰)(三0)파부내일출정(日出町)에 현주를두고 상옹영(尙相龍)(四0)파 부천시대홍면 대홍면 삼정리 (平南大同郡大同面三井里)에두고 부내서경정(西京町)리옹산(李容山)봉등(奉東)일인데 이자들은 섬청판전문으로 절취하는 자로 취조에따라여죄가만흘듯하다한다

십삼번지 리희성(李喜成)(二七)은 압경고화성(高和成)등 상인조절도단은 경부선정인선파 부내를중심으로하고 자전차(自轉車)만전문으로 절도한 소년절도인데 리용재는 작년섯달그믐에 동대문서에서 구류하고 나오자 바로 각처로 도리다니며 재자전거이십여개 가격으로는 팔백원어치를 집어다가 팔어먹고또한영등포(永登浦) 방면으로와서행각을하여다가 달치못하고마츰내

自轉車窃盜團 永登浦署被捉

【永登浦】 부천을 부내 하왕십리(下往十里)리봉재(李鳳載)(七)동정 이백사 라의죄가만흘뜻하다한다

平康時局講演

【平康】 평강국방의회(平康國防義會)에서는 당지회관에 군사강연을개최하고 이등노산(伊藤魯山)씨를초빙하야 장시간의 열변으로 현하국제정세(現上國際政勢)에 감하야 시국의 중대성에 대한인식을강조하고 오후네시반에 폐회하얏다

영등포서 장륙만 형사에게 체포되여 엄중취조중인데 불일간 검사국으로 송치된다한다

青島에物資缺乏

仁川에서日用品供給

=十四、五日頃에滿載出航=

【仁川】 북지가 명랑화를따라인 천대 북지의 무역은 나날이증가하는 현상인데 금번에는 청도(青島)로부터 인천에 중요한 일용품주문이 살도하엿는데 여며 글루 청도의 물자결핍으로 서하여 백톤이상의 발동선을 려 주문한 물품을만재코 청도에 직행할 준비를 하는중인데 출항은 십사오량일간으로하다하며 이것을 비롯하여 취인은 일층 더 빈번하리라고 예상된다

인천청도간에 정기선이업는 기에 조선우선(朝郵)회사에서 스므로 조선해양사(海洋社)와교섭하다

長篇小說 林巨正

洪碧初 作 金熊超 畫 【47】

소굴 (十五)

꺽정이가 원씨집에서 불려져 내먹고 초때참 한숨 놓어지게 자고 밥홍이 지난뒤에 다시김 씨집에를 와서보니 김씨는 그때까지 자지안코 기다리고 잇섯다 벼개우에서 김씨가 나제 미진한 이야기를하는데 이야기 중에 그동안 노밥이에게 속상 한 하소연이 만하다 먹는것은 달은사람 배불리머며 일은 죽어라고 아니하고 혹간 밥부록 이 일을시키라면 빌어모시듯해야 어떠케 꿈적거리나 그나마 제맘이 내키지안흐면 쇠귀신보다 더 질겨서 비부쟁이나고 꼿 상전인데 이런것은 오히려 소 분지요 병신 고운데업다고 그 중에 흉측스러운 말이 잇서서 선다님이 보구십지안흐냐 혼자 자기 고적지안흐냐 이따위 말을 감금하고 어느때는 멉석달

『청우에는 기집이 서방을 실혀하는 눈치가 보이더니 지 금은 년놈이 둑가리 서방농 동이를 떠러다니지요 그래서 오늘도 들려가는데 가치가지 안햇세요』

『내보내면 기집까지 속냥해 주어서 내보내구 담니머질처 럼 놀랍하미와 기집아이년을 어더두구 지내지』

『아무러케든지 조토록 해주세 요』

꺽정이가 다섯연에 비로손는 을 부처서 잠을 잔지만지하게 자고 깨엿슬때 밧게서 김씨와 노밥이사이에 가고오는 말이들 리엇다

『선다님도 오시고들꺼렷군 비 짜루를 불고들이다니』

『나는 일꾼생 무슨일이든지하 구시프면 한구 말구시프면말 지 한구실지안흐일을 남의눈 가림으루 해본적이업소 지금

이 누군줄 아느냐 해서 대적 해준셋이다 지금까지는 운수가 조하서 잡히지안햇지만 잡히는 날이면 따라서 경칠테니 진작 알아차리라고 엄청난 소리를다 하더라고 김씨가 가지가지 이 야기한뒤 끄트로

『내가 드린사람이면 밧서 틀 거저 내쪼칠것인데 드려주신 사람을 내 자의로 내쫏기가 어려워서 단근질참듯 참엇세 요 인제 오섯스니 얼른 어 떠케 조처해주세요』

하고 남편을 졸랏다 꺽정이 가 노밥이를 아무짝에 쓸데업 는 사람 기와깽이로 알면서도 미친체하는것을 밉지안케 보고 거짓말하는것을 우습꺼리로 들 어서 심심할때 노밥이가 심심 푸리 소일깜이되는까닭에 한온 이가 불칙한 회상이라고 보내 라고 팔한적도잇고 또 황천왕 동이가 이간질하랄 위인이라고 상관말라고 말한일도잇섯건만꺽 정이는 보댐만로 나지아니하엿 고 상관말생각도 통지아니하엿 섯다 김씨의하소연하는사람이노 밥이가아니고 달은사람이라면내 쫏기는 고사하고 곳 죽일작정 도 하엿슬것인데 꺽정이 자기 가 자기말로 괴상하게 녀기도 록 회도 별로나지아니하야

『그놈이 원래 미친놈이야 입은 사구일생이구』

대수롭지안케 말하엿다

『미친놈을 왜 집에다 두고속 을 썩여요』

『그것을 남긴기실사이는 어떠 고 팔생이언나』

다닙이 일어나서 보든데 해 야할이지』

『선다님 주무시니 너무떠들지 말어』

『어제밤에는 호옷하게 잘주무 섯소』

『호옷하게 잘자는건 무어야』

『오래간만에 선다님을 만낫스 니 말이지』

『저런 망할놈이잇나』

『식전에바람에 무슨 욕이요선 다님 자세요』

『떠들지말라니까 더 떠드네선 다님이 깨시기만해봐』

『자기가 떠들며 누구더러 떠 든대 그러구 선다님이면 제 일강사인가』

꺽정이가 기침을하번하야더니 오고가든말이 뚝 끈치고 바로 김씨가 방으로 들어오는데 분 이 나서 숨을 잣게쉬엇다 꺽 정이가 일어나서 다님 허리띄 를 주서매는동안에 김씨는 홋 이불을 개어언고 방문을 열어 노핫다 꺽정이가 대청에 랑간 만 쓰고 방문밧에서 밧을 내 다보며

『노밥이 어듸잇느냐』

『뒷간에잇슴니다』

『네서방 어듸갓느냐』

하고 소리 치니 노밥이의처 가 부엌에서 나와서

『부얻에잇습니다』

『훔쳐란』

노밥이가 그저야 꺽정이아페 나와서

『칙수안녕이하섯습니까』

하고 허리를 굽신거리엇다

淋疾

排菌早期療法

淋菌은勝脫帶蓄의保菌部에潛在하기때문에局所治療로는菌을없애기困難하오니此等의부분에潛在하는淋菌을徹底히治療하는目的의藥에最新發賣된コノラミシ을服用하시면淋菌은全部早期排菌療法으로深部의淋菌에全部効果가잇는唯一의新藥이올시다

發賣元 株式會社 阿部藥房 京城府本町二丁目 振替京城二四七八番 電本局(2)二六一六七番

製藥元 大阪 コノラミシ製藥所

恩給

二千四百圓 年利七分 保證 京城府 ... 永保グル内 電話(光)六三九番

家具

事務用椅子·卓子·書棚 販賣 ... 本町 電話 ...

朝報案內

社員招聘

熱意와努力家를求함 ... 太平生命京城支社 京城府黃金町二丁目一七三

出張所長招聘

平南北、黃海道中心으로希望者 大正生命 日本教育生命 ... 平壤支部 (電話二三〇二番)

フォスト·タイマー

新發賣

フォスト タイマー한것은 邦文타이프라이터에 好評을받은 本社가 今回發表한 最新의 自動時間記錄器올시다

勤務時間의 記錄은 工場其他時間의 必要로하는곳에 넓리 利用되는 가지고잇습니다

新聞名記入해서 申込하면 即時 型錄贈呈합니다

日本タイプライター株式會社 東京市京橋區...町二丁目一

支店 大阪·大連·上海·東京·新京·天津·名古屋·札幌·京城·奉天·臺北·金澤·哈爾濱·仙台·廣島·福岡·新潟

中國名方 大靈藥 性器強

男子의性器가先天的으로不全하거나後天的으로自然이衰弱하야早漏되며夢泄遺精等으로心身이不安하신분은 中國의名藥 一帖奇丸을服用하시면 不安과恐怖에서 解放되야 大滿足의 悅樂을엇게될것이다

一年分 五圓五十錢 一個月分 三圓 (前金送料店振替送)

早漏立止

支那秘方을近代式으로 製藥한 中國名藥 ...

日滿商事藥品部 振替京城二七四五五番

百日咳에 小兒用 코프데스

大阪 笹岡

齒痛に에 今治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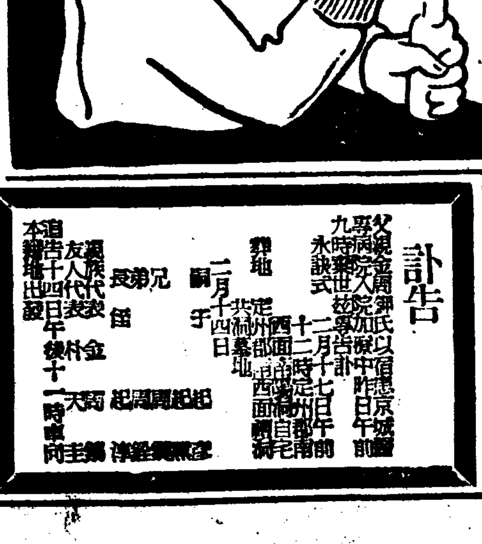
一滴、二滴……못견될齒痛이 시르르업서지는 고마운 반가움!

齒痛에는 옛이나지금이나今治水 効力速하고害업는良藥

大阪 東京 丹平商會 全國藥店에잇슴

虫齒痛 齒根痛 神經、肩背 頭痛으로오는齒痛

ピンセット 綿棒添付 二十錢 三十錢 五十錢



●宿醉

로엇저지머리가무겁고희미하던지、胃腸이괴롭든때等곳 ノーシン을잡수시요▲頭重이나眠氣를업세서頭腦를깨끗하고爽快케됩니다▲宴會에는必要

東洋劇場

◇東劇二重興行에注意◇ 晝間은映畫-午前十一時始映 夜間은演劇-午後七時開演

▲二月十一日부터▼ 劇團豪華船凱旋公演 ◇夜間上演藝題◇

九月山人作 『演習하는夫婦싸홈』 一幕二場

李瑞求脚色 『눈 물』 四幕

일즉이每日申報紙上에連載하야數萬讀者의눈물을자아내든대로家庭小說『눈물』을日匠李瑞求氏의脚色으로豪華船이上演하게된것은新春劇界에一大收穫이라할것이외다!

幼年名花稚美花孃의熱演을보고흘리는눈물은누구의눈물일지몰으나 이것은여러분의눈물이 아닐는지요

◀晝間映畫▼(每日二回映寫) 大衆料金(階上二十錢均一 階下十錢)

訃告

父親金周鎭氏以宿患 九時藥石無効 永訣於茲專告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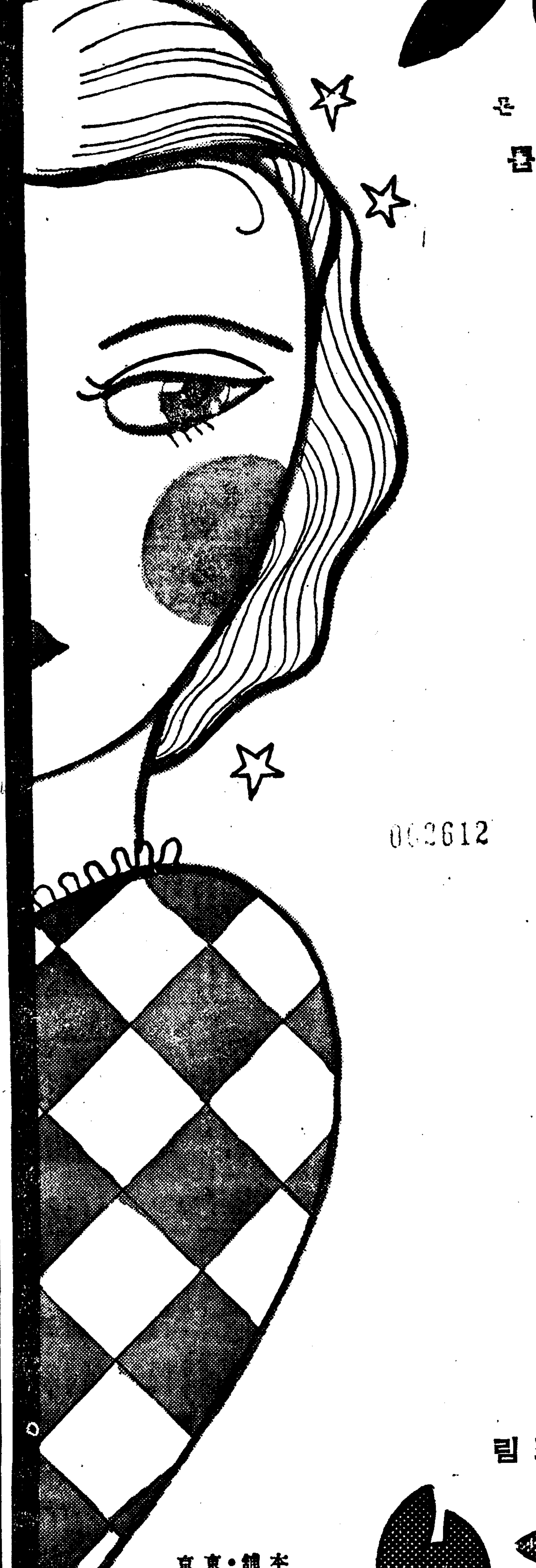
... 十二月十七日午前 ... 二月十四日 ...

葬地 ...

嗣子 ... 長弟兄 ...

友人 親族代表 ...

ヘチマコロ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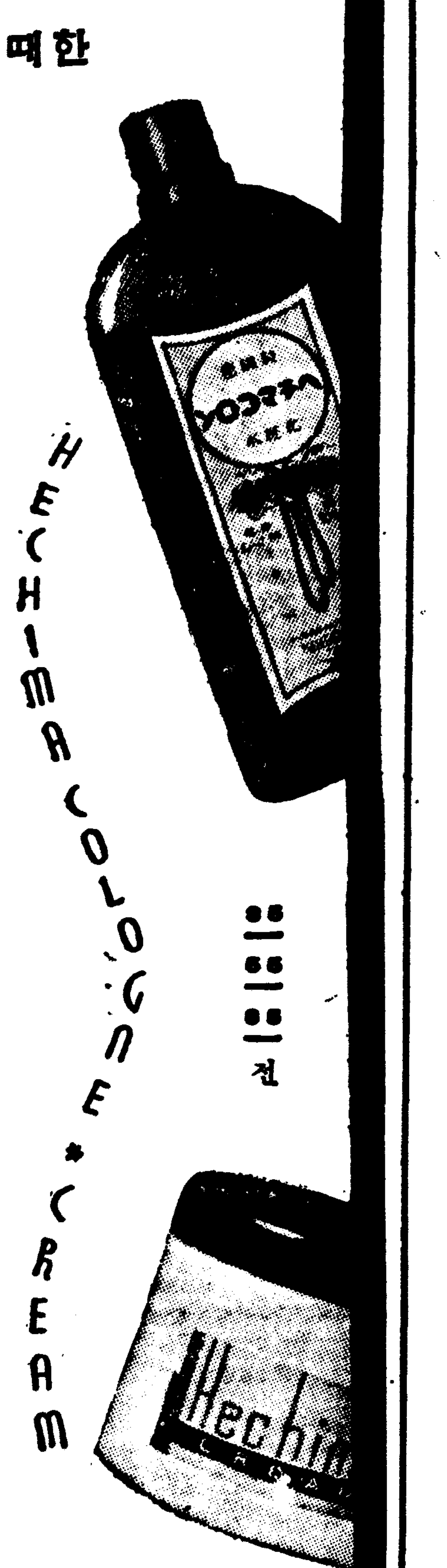
먼저살결의强化!

풍기는아름다움도

넘치는젊음도問題

업습니다……………

그대의것은久遠의봄



滋味豊富하고●觸感상쾌한標準크림

ヘチマクリーム

헤 치 마 크 림

本舖●東京 天野源七 株式會社 近源商店

TCG.A

朝鮮·滿洲·支那의 事變下經濟大勢

鮮銀總會席上 松原總裁 報告

二月十四日 東京에서 열린 第五十七回朝鮮銀行總會席上 松原總裁의 昨年下半季間 朝鮮 滿洲와 支那方面의 經濟狀勢와 同行營業狀況報告는 如左하다

朝鮮 經濟界는 支那事變과 時局關係에 基한 諸政策의 影響에 依하야 若干影響이 잇섯스나 其大勢는 前期以來의 情勢를 保持하고 主要農産物은 모다 未曾有의 豊作을 告하얏스며 鑛産水産도 增大되고 工業은 益益殷賑하야 旺盛하얏슬뿐아니라 最近에 至하야 軍需工業의 企畫이 相續하고 從하야 朝鮮貿易은 新記錄을 出現하는 等 各方面의 躍進狀이 顯著하얏다。卽 農産界에 잇서서 米는 作付面積增加와 天候適順으로 昨年의 實收高가 二千六百七十九萬石에 達하고 前年에 比하야 三割八分의 增加이며 麥實收高는 前年에 比하야 一割 四割一分以上의 增加를 告한外에 棉의 收穫高는 二億四千百萬斤에 達하야 前年에 比하야 一億四百萬斤의 激增豫想인 同時에 大豆、粟、叺等도 增收量을 示한 狀態이다 此等農産物의 市勢는 大槪好勢가 持續되엇스므로 農村經濟를 潤澤케한바 곤뿐아니라 一般經濟界에 顯著한 好影響을 與하얏다。鑛業界는 昨年九月發布된 朝鮮産金令에 依하야 産金額이 時히 增加趨勢이오 鐵과 石炭은 軍需關係의 需要增大에 依하야 其生産高가 增加되고 斯界는 繁榮하야 異常한 活氣를 呈하는中이다 水産界는 鰮、鯖等의 主要水産物이 例年에 比하야 豊漁를 告하고 特히 北朝鮮方面의 鰮水揚高는 前年에 比하야 五六割의 激增이며 이것의 製造加工業은 未曾有의 殷賑을 呈하얏다。事業界는 臨時資金調整法等의 實施에 不拘코 繼續하야 鑛工業方面의 異常한 進展의 結果、當期中의 新設擴張에 關한 會社는 三百八十八、此資本 二億一千萬圓을 算하고 前年同期에 比하면 社數는 조금 增加이엇스나 資本은 八千六百萬圓의 增加이엇다 如斯하야 當期中의 朝鮮貿易은 輸移出 三億四千六百萬圓 輸移入 四億一千九百萬圓에 達하고 前年同期에 比하면 輸移出은 六千三百萬圓 輸移入은 二千百萬圓의 各增加이오 全年通計는 輸移出 六億八千五百萬圓、輸移入 八億六千三百萬圓에 達하야 前年에 比하면 輸移出은 一億百萬圓、輸移入은 一億四千九百萬圓의 各激增이엇다。就中昨年中의 對滿貿易은 輸出九千二百萬圓 輸入六千九百萬圓에 達하야 前年에 比하면 輸出은 二千六百萬圓 輸入은 三百萬圓의 增加를 告한 狀態이다 此間 金融界는 內地의 資金梗塞影響과 朝鮮內의 時局事情에 依하야 一時多少硬化氣配를 示하얏스나 大勢는 依然順調에 推移되고 九月中에는 日銀利下에 順應하야 當行도 當座貸越及소릭스(短資)貸越各日步一厘引下를 實行한 外에 當行保證發行限度擴張에 依하야 朝鮮內金融의 緩和에 資한바 不少하얏다 如斯하야 當期末의 朝鮮內同業者의 預金은 三億六千三百萬圓 貸出은 七億七千萬圓에 達하고 前年同期末에 比하면 預金은 二千四百萬圓 貸出은 八千萬圓의 各增加이엇다

要컨대 朝鮮의 産業經濟는 大體로 堅實한 發展이 繼續되는中인 事實이다 支那事變勃發以來 其本來의 地位에 鑑하야 內地、滿洲와 北支方面과의 交通을 圓滑케 하기爲하야 輸送施設을 整備하는 同時에 大陸의 兵站基地로서 物資調達配給에 寄與貢獻하얏고 戰時經濟의 遂行上 內地와 相互呼應하야 其體制完備를 企圖하는 同時에 倍生産力의 擴充에 努力하얏고 將來도 一般經濟의 健全한 發展을 期待케되엇다 最近朝鮮에서는 時局에 關한 認識의 徹底함에 伴하야 所謂內鮮一體의 精神的結束이 去益鞏固케되고 各方面의 實情으로 보아 ……

滿洲 에서는 三國防共協定成立과 前後하야 治外法權撤廢及滿鐵附屬地行政權移讓에 關한 日滿條約이 調印되고 伊政府의 滿洲國正式承認이 잇서서 滿洲國의 國際的地位를 向上케되엇다 支那事變의 發生以來 我國과 不可分關係를 濃厚케한同時에 產業統制强化에 依하야 經濟第二期計畫에 漸次其步를 進하는中이다 當期中의 特産界는 商業時의 需要急增에 伴하야 其出廻가 激增되고 輸入方面은 建設資材와 原料類의 輸入이 著增되는 同時에 諸會社가 設立되는 新企業이 鑛工業、化學工業에 簇出하야 相當히 繁忙하얏다 如斯 一方滿洲事業界는 一時活況을 呈하는中이다 依하야 滿洲國의 當期中貿易은 輸出二億七千九百萬圓、輸入四億七千三百萬圓으로 前年同期에 比하면 輸出은 二千五百萬圓增加이며 輸入은 一億二千百萬圓의 激增이엇스나 其後滿洲經濟는 不振한 狀態에 잇섯으나 ……

其後經濟建設에 伴하야 日本同時에 歐洲의 需要急增에 依하야 日滿間의 貿易外 當行의 貸出金準備와 共히 各銀行의 資金을 激增하고 特히 農村의 購買力은 依然强化되엇다 此間滿洲國政府는 滿洲國發券法을 公布하고 投資事業公債의 發行限度를 擴張하야 重要産業開發에 要하는 資金의 調達에 備하얏다

要컨대 最近의 滿洲經濟는 國際的으로나 國內的으로나 重要한 地位를 示하고저하는 經濟的發展을 示하는 同時에 今次支那事變이 不少한 影響에 依하야 滿洲國의 産業은 急速하게 發展에 依하야 何等障害가 업슬 時局에 對하야 一層日滿兩國의 生産力擴充에 努力하야 一層日滿兩國의 緊密한 協力을 促進키에 至하야 이와 同時에 滿洲重工業의 綜合統制會社로서 日産과 滿洲國과의 共同出資에 依한 滿洲重工業會社等設立等의 ……

支那 今回의 事變은 未曾有의 事態를 展開키에 至하야 從하야 支那經濟에 全面的으로 重大影響을 及하얏다 當行支店의 所在地인 天津及北京은 事變當初부터 非常한 困難에 陷하고 上海도 八月中央 事變으로써 相當한 影響을 當하얏다 當行支店은 一時休業키에 至하얏고 靑島와 如한데도 漸次外國邦人의 引揚을 示하야 在留邦人의 生命財産의 保全키에 狀態이엇 든데 命의 同時에 잇는 當行支店은 八月末 大連에 撤收를 決行하얏다 當行에서는 在支各店과 其行員의 保護上 萬全의 策을 講하고 當局의 指示에 從하야 當行券을 軍費支拂에 使用하얏슴으로 그 京津、京漢、津浦의 ……

作戰의 進展에 伴하야 日滿一體 經濟의 建設上 天津 北京 其他 占據地域에 接續하는 同時에 石家莊及太原에 出張所를 新設하야 當行券이 流通케되엇다 一月二十日 靑島支店을 再開한外에 天津支店도 一月二十日 營業을 開始하얏다 上海方面도 漸次復舊되엇다 北支方面에서는 中華民國臨時政府가 樹立되고 十二月十四日에 至하고 北京에서 新政府의 統制하에 北支의 鐵道를 再開하고 本年初 其經濟工作 新中國聯合準備銀行의 設立計畫도 發表되어 이어 政治上統一과 經濟的合作을 期하게 되엇다。此間當行은 北支經濟의 其根本的으로 重大한 使命에 照應하야 工作과 支那金融에 適用한 我國工作를 圖하고 今後共히 北支那經濟의 開發에 對하야 一層努力할 것이다 今次의 戰果를 가장 有効케하기에 用意하고저한다。

鮮銀總會

鮮銀에서는 十四日午前十時부터 東京支店에서 第五十七回定期株主總會를 開催하고

一、昭和十二年下半期營業報告의 件
二、同上利益金處分案承認의 件
三、監事任期滿了에 依한 改選의 件
四、前監事加藤敬三郎氏에게 慰勞金贈呈의 件

等을 附議하얏는데 決議事項은 原案을 可決承認하고 任期滿了된 監事加藤敬三郎氏가 昭和二年十二月以來 其任에 當하야 功績이 顯著하얏스므로 慰勞金을 贈呈키로 하얏다

利益金處分은 左와如하다(單位圓)

當期純益金	二、七八五、七六〇
前期繰越金	二一、一二五
合計	二、八〇六、八八五
法定積立金	三〇〇、〇〇〇
配當平均準備金	三〇〇、〇〇〇
役員賞與金	六〇、〇〇〇
新株配當金(年四分)	八〇〇、〇〇〇
後期繰越金	三〇〇、〇〇〇

朝鮮의 戰時增稅
大藏省方針順應
但第三種所得稅、酒稅는 考慮
物品稅는 內地와 同率

戰時增稅案에 對해서는 方今財務局에서 大藏省當局과 折衝中에 잇서서 아직 그 決定은 보지 못하얏스나 大體는 大藏省의 方針에 順應할것은 勿論이고 一部租稅는 朝鮮의 事情을 考慮치 안흘수업는것이 잇서서 財務局으로서는 特히 硏究中에 잇다 卽第三種所得稅는 中央과 同一한것이 된 標準이 內地側과 全혀다름으로 課稅의 標準이 內地와 全혀다름으로 이點 다시 硏究의 餘地가 만타고 한다 또한 內地는 이번에 一千二百圓에서 一千圓으로 引下하엿다하나 朝鮮은 本來八百圓이엇고 또 稅率도 朝鮮의 負擔力의 關係도다 다름으로 勿論이고 一部租稅는 餘地가 잇다는것이다 또 特別物品稅는 大體로 內地와가티 品目과 稅率을 가티올리게될 것이나 그中에 酒稅는 朝鮮의 事情도 考慮되고잇다 特히 酒稅中 勞働農民의 大衆消費에 關한 濁酒燒酒에까지 增稅할것이냐 하는것은 大衆의 負擔이 過重해질念慮도 잇고 또 現在酒造業者의 企業狀態로 보아 또 아직 幼稚한터이므로 增稅를 하는 境遇에는 企業上 打擊도 잇지 안흘까하는것도 考慮되고 잇다 그러나 物品特別稅中 酒稅 特히 濁酒燒酒外는 大槪內地와가티 될 것이다

朝鮮內昨年下期
計畫資本增加
比上期八千餘萬圓增

昭和十二年下半期의 朝鮮內에 잇서서의 計畫資本(新設擴張에 屬하는것)은 會社數 三百八十八 其資本金二億一千萬圓으로 上期에 比하야 社數에 잇서서는 少數의 增加에 不過하나 資本金에 잇서서는 八千六百萬圓의 增加로 依然朝鮮産業의 活況을 證明하고 잇다

今年도 續增
八千萬圓凌駕

今年에 入한後도 資金調整法下에 잇다고는하나 事業會社新設增加가 顯著한바 그重要한것만도 百萬圓 ▲朝鮮化學工業一千萬圓 ▲江界水電五千萬圓 ▲西鮮中央鐵道一千五百萬圓 ▲朝鮮亞鉛 等八千萬圓을 凌駕하야 增勢가 繼續되고잇다

全朝鮮各銀行
預金增·貸出減
一月末現在狀況

一月末現在 全朝鮮銀行狀況은 預金은 四億七千八百五十七萬八千圓 貸出九億五千三百八十二萬八千圓으로 比前月預金一千六百八十二萬四千圓增이나 貸出은 二千四百五萬四千圓의 減少이며 比前年同月預金六千五百四十五萬六千圓 貸出九千六百七十六萬六千圓의 各增加이엇다

어제 그內容을 示하면 如左하다(單位千圓)

一月末全朝鮮銀行狀況

▲預金	一月末	前月比增(△印減)
定期	二〇九、五四	△三、九七
當座	六七、四八	四七、三八
通知	二六、五九	一、六〇一
其他	六七、四八〇	二、四〇六
合計	四七八、五七八	一六、八二四
前年同期增	六五、四五六	

▲貸出		
證書	二〇七、三三	△ 一六五
手形	四〇、八九八	二、四八一
當座	二五七、七八	一〇三
割手	四八、二四四	△一、一七七
荷爲	二〇、三五八	△二、六〇二
其他	四〇、三三二	△一、七四四
合計	九五三、八二八	△二四、〇五四
前年同期增	九六、七六六	

朝信不動產信託 全國最高信託高

朝鮮信託의 不動產信託勘定은 最近의 帳面에 依하면 二千四百萬圓에 達하는데 이것은 內地信託業法第二條規定에 ……

海苔作況
자못良好

朝鮮內海苔는 凝結後에 天候가 順調하얏기 때문에 種苗의 發育과 藻體의 伸長이 모다 良好하야 大豊作을 豫想하고잇는데 一時氣候가 例年에 比하야 上昇의 傾向을 示하엿기 때문에 全南에 잇서서의 各漁場에서는 靑藻類等의 被害를 본곳도 잇스나 其後氣溫低下와 共히 作業回復하야 其被害는 ……

纖維品製造設備의
新增設에 許可制
輸出入臨時措置法强化

【東京】政府는 國際收支改善의 目的으로 棉花、羊毛、펄프等의 纖維製品原料의 輸入統制를 行하고잇는데 此等原料의 需給關係를 調節하고 그國策的 運用을 期하기爲하야는 纖維製品의 製造設備에 對하야서도 適當한 調節을 加할必要가잇고 또此等設備의 濫設을 防止하는것은 資金의 調整法精神에 依하야 商工省에서는 今回輸出入品等臨時措置法第二條規定에 基하야

工省令을 十二日에 公布하야此等製造設備의 新增設에 關하야새로히 許可制度를 設定하게되엇다

纖維工業設備의 新增設에 關하야서는 臨時資金調整法에 依하야 從來도 適當한 調整이 行하여잇스나 今回의 省令은 資金調整法의 ● 適用을 밧지안는 中小設備도 許可制下에 置하는것이다 여에 依하야 毛紡會社의 織物兼營紡織會社가 紡績設備를 操業하는 等 그대로 새로히 「스테ー플·화이버ー」製造設備를 新設하거나 또는 既設能力의 改良等 一切가 政府의 許可制下에 잇게된바 省令의 如左하다

一、纖維工業設備에 關한件 羊毛人造絹毛 또「스테ー플·화이버ー」를 原料로하는 紡績綿織物 또는 메리야스를 製造하는 者가 其製造機械의 新設 또는 增設을하려고하는때는 地方長官에게 許可를 어들것

一、前項의 製造機械는 商工大臣이 이를 指定

【附則】本令은 昭和十三年二月十八日부터 이를 施行함

無煙炭出炭
八十萬五千屯
炭價一圓五十錢引上

十三年度의 朝鮮產無煙炭出炭協定은 二月上旬東京에서 無煙炭鑛組合總會를 開催하야 開催한結果 本年度出炭量을 左와 如히 決定하엿다

一、出炭量=前年의 實績五十五萬屯에 對하야 二十五萬五千屯을 增加하야 八十萬五千屯으로함

一、炭價=各種炭別로 若干의 銘柄別이 잇스나 平均一圓五十錢引上

이 出炭의 增加는 內地에 잇서서의 「코ー크스」炭의 入減에 伴하는 豆炭 煉炭의 原料用의 需要增大에 基한것이다

電球對英輸出
前途자못憂慮

朝鮮產電球는 對英輸出을 中心으로하는 海外販路의 開拓으로 纖工業中相當한 地步를 占하고잇섯는데 事變의 影響을 바더 英國의 商策으로 對英輸出의 前途는 자못憂慮되여잇다

이것은 日英間에는 年年電球輸出協定을 締結해왓섯는데 英國側은 本年度에 日本의 狹制를 信賴할수업다는것을 理由로 輸出協定의 更改에 應치안는것이다 이것은 外務省에서는 遺憾一種不安의 事態에 依한 對日反感도 多分히 包含되여잇다고보는데 目下進展은 됨이 憂慮된다고하다

北支棉
朝鮮內初輸入

朝鮮郵船의 天津航路開設第一船新義州丸은 去十日 麥粉其他食料品四百噸을 積荷하고 天津에 向하엿는데 復航은 北支棉七百噸을 積荷하고 十六日 天津을 仁川에 歸航하게 되엿다한다 北支棉의 朝鮮內輸入은 今後同航路로 繼續出廻될것이라고본다

本年度生產豫測 前年度生產

	萬斤	萬斤
全南	六〇〇	三〇〇
慶南	二七〇	四〇〇
黃海	一五〇	三

(本年度生產豫算은 左와如히 大豊作이라한다)

米移出增
粟輸入依然減

朝鮮米는 一月末까지의 記錄的大量移出의 뒤를이어 二月上旬에도 相當한量의 移出을보이고잇다 卽上旬은 二十五萬七千二百三十九石으로 前年보다 約二萬石의 增을보아 累計四百二十三萬九千八百四十八石에 達하야 前年보다 百二十二萬餘石의 增을보이고잇다 一方에 北支方面의 輸出에 多少增加의 趨勢를 보이고잇서 上旬中은 前年의 七百三十四石에 對하야 本年은 三千五百七十八石으로 前年보다는 顯著한 增加를 보이고잇다 粟의 輸入은 朝鮮內米需給이 豐富한 ……

만큼 輸入이 減하야 上旬까지의 累計에잇서서 前年의 二十萬一千餘石에 對하야 本年은 十四萬三千餘石이다

今日財界 (十四日)

◆米 (單位錢)

	今日終止	比前日前止
仁川期米先限	三〇四	一八低
大阪期米先限	一	一
京城一等白米百斤	三〇〇	不變
正租(仁川)一等	九錢一厘	高

◆株 (單位十錢)

	今日終止	比前日前止
朝新	五一	一高
東新	一六六	一低
鐘紡	一七〇	一八低

◆商品 (先限單位錢)

	今日終止	比前日前止
大阪三品		
棉絲	二三〇〇	二〇高
砂糖	二七〇	三低

忠南 三三 一五 一五 一八

計 三六 三五二 二五四

그리고 大部分은 內地에 移出되엿스나 內地主要濟의 不作으로 出廻가 적어 鮮海苔의 取引은 好調를示하야 十二月中取引은 東部單價中年에 比하야 三割의 高値를 示하고잇다 오직 最近의 朝鮮產品의 大量進出과 內地作況의 回復에 依하야 多少軟調이나 何如튼 昨今朝鮮產海苔는 豊作과 高價로 好況에 들어잇다

今日의 市勢 (十四日)

株式 活況
朝新獨高

前場朝新高 今前場은 朝取는 九十六圓五十錢 朝新四十圓丁에 買煽되어 活況인外에 其外主力株는 嫌氣賣物로 低落不勢이엇스니 東新은 百六十七圓五十錢 鐘紡 二百七十九圓九十錢 滿重八十七圓二十錢 大新九十三圓八十錢에까지 떠러젓다

後場下落 後場은 朝新三十九圓二千錢 東新百六十七圓八十錢 大新九十四圓丁 滿重八十七圓二十錢 鐘紡二百八十一圓丁

朝新買煽
四十圓丁

朝新株에 對한 買氣는 近來顯著하더니 今前場에는 主力株不勢에 不拘코 朝新이 買煽되어 四十圓丁의 高價를 보이엇다 仁川側으로 指目되는 新田 內海 旅濡等諸店으로부터 優勢한 買物이 쏘다저나오는까닭인데 業績外에 他材料가 잇다고까지떠드나 그보다는 事變의 終局되면 株界의 擡頭가 豫想됨으로 그때를 바라고 比較的價位가 低한 朝新에 思惑買가 나가 이러케 보는것이 常識일것가튼데 實株引取의 顯著함이 豫想되는 만큼 朝新株의 取組內容을 보면 如左하다

(賣方) 東亞 三、五〇〇 新田 一〇〇〇 朝商 一、八〇〇 大原 一三〇〇 立山 一〇〇〇 京畿 一〇〇 金益 一〇〇 外十二店

(買方) 新田 一三〇〇 內海 一〇〇〇 立山 一四〇〇 田原 一〇〇 吉野 一〇〇

米期 不勢
漸落步調

前場漸軟 休日을 經한 今朝는 阪地初付 又復二丁低인 三十四圓四十錢을 擬하고 當限은 三丁低인 一圓四十九錢 先은 四丁低인 一圓六十六錢으로 始한後 大阪十九錢으로 小戾하엿스나 大阪連節低押인 廿八錢과 取引實物不絶로 六十一錢까지 低押하야 一步一步弛緩되다가 結局大阪二十八錢止로 擬하고 六十錢의 最低價로 引場을 止하다

後場低落 後場은 三十一圓五十九錢에 一丁低로 始場後二節五十二錢에 떠러지고 五節五十錢이엇다

實米重壓擡頭

現下在米關係를 一瞥하면 各港口에 그數量이 相當한額에 達하다가 日本內地로의 移出은 不振하며 產地의 氣分도 正租價의 割高를 呈한 此時에 處分하라는 人氣도 擴頭되는것이다 더구나 短期貯藏米滿期解除를 압두는 만큼 賣氣가 現著히 增長되는것으로 因하야 實米의 重壓은 氣分이 市勢에 强壓되는 實情에 處하여다고볼수잇다 그러므로 休日前부터 ……

市場六感

……形勢가 良化되는것은 事實이지만 議會中이오 또 戰局도 別로 新局面을 展開할것이 업서 積極的 買氣는 不起 ▲주머니주가 업슨으로 投機的 好味가 적은모양 ▲그러나 徐州會戰의 豫想이 된 一市勢가 잇을것은 豫想할 바가 아닌 그때까지 待機之勢 ▲朝取新株가 되면 大市勢의 前奏曲 ? 사서 成功할일이 업는 이기로 時代가 다르리 注目할만도하지……

(米)…… 一休할지나 今朝는 又復低勢를 示하며 漸次로 下押되는 形勢 ▲元來 新甫海上關係에 不拘코 推測하면 그 만큼 實力이 잇서서 不足한 素因이 잇슬 ▲그것은 昨年新穀期以來로 ……기만하던 反動으로 몹시 ……하야 一時대로 곳 그 무르기 시작하야 ▲그만큼 市況이 ……

殘米量을 重視
三月一日現在

市勢는 多少低下될 兆朕이 濃厚하여 期近을 先頭로 幾分下押되는 形勢이나 그 步幅은 狹少하야 新甫發會後 一圓九十九錢을 最高로 漸次低押되어 新甫價一圓七十六錢도 割下하야 六十錢臺로 崩落되엇다 此原因은 實過反動과 實米重壓에 依함은 勿論 一方三月一日現在 殘存米數量은 强氣側의 觀測과 如히 早喰及 特殊需要로 因하야 大減少는 업스리라고 하는 推測이 擡頭되야 需給關係의 特殊需要가 今後繼續될 것이라는 …… 不時高期待로 實體가 不足 ……

市勢는 忽然軟化하엿고 就中當限은 期近物은 實米重壓이 激甚하야 大阪은 四圓臺를 割下하엿고 當地도 一圓臺를 維持하기極難하야 當地도 月末近接과 同時에 短貯米가 解放되면 自然定期로 實勢을바게업는 形便임으로 期近의 顯著한 壓迫을 受하야 一朝되면 따라 先限도 一落을 未免할가리 艮實人氣가 場面을 當分間支配할것갓다고 觀測하는 이가 만타고한다

朝取期米取組內容

▲當限

(賣方) 谷 一五〇〇 ㊀ 二〇〇 ㊉ 二〇〇 ㊁ 二〇〇〇

(買方) 谷 二〇〇〇 ㊁ 二〇〇〇 ㊁ 二〇〇〇

[illegible]

京城釘付

休日翌日인 今朝는 上記期米의 一齊下放으로 實米市勢도 釘付狀態를 示하얏다 產地側의 出廻는 多少減退되엿스나 高地側의 低價로 ……

㊀ 三等三一、一〇 四等 三〇、九〇 一等白米 一二、八〇

正米 鈍狀
人氣不振

仁川軟調

昨夜來의 大降雪에 商勸杜絶로 市場은 恰似히 休日과如한 狀態로 仲仕도 前日同様으로 不變이며서 市中人氣는 三次實上을 豫想하나 高價는 바랄수업고 目前春喰을 앞두엇스므로 一齊軟化傾向을 露呈고 잇다

穀良三等三一、一〇 四等三〇、九〇 銀坊主三等 三一、一〇 四等三一、一〇 多摩錦三等 三一、六〇 四等三一、四〇 一等白米四一、八〇 ㊉一二、七〇

釜山下放

阪地期近低로 場面은 軟調이고 必需側의 小口買以外에는 모두 閑散市場이다

穀良 三等三一、三五 四等三一、一五 一等白米 一二、七六

大邱氣重

新材料의 今朝는 賣方動機로 傍觀氣分이 濃厚하고 잇는데 朝來定期의 弱注文으로 場面氣重商狀을 呈하고잇다 ㊀穀良三等三〇、九〇 四等三〇、七〇 一等白米 一二、六五

群山下落

頑强하든 正租도 一厘低인 一方 春喰을 目前에 앞둔이지음이라 賣方態度가 弱해지고잇스나 內地入荷不振과 朝來期米의 一齊軟化로 買氣가 업서 場面閑況裡에 市勢도 十錢乃至十五錢의下放을 告하얏다 ㊀銀坊主三一、〇五 三〇、九五 一等白米一二、〇〇

木浦續落

休日翌日로 出廻十七輛이라는 旺盛한 產地流入을 보앗스나 繼續하는 內地買行不振과 目前의 無材料로 硬軟共히 積極的活動이 업서 當用側의 僅少한 賣買뿐이오 淸算의 下押으로 市勢도 十錢低로 不勢이엇다 ㊀三一、五〇 三一、三〇 一等白米一二、九五

期米 趙俊鎬取引店 電話本局二一一 自宅

康益夏 仁川 明 米 益

朝取取引員 昭和證券株式會社 京城明治町一丁目 電本代表長二一六八

海外經濟 十三日

銀行券 十三日

◆朝鮮銀行券 [illegible]

◆日本銀行券 [illegible]

金利

◆東京金利 [illegible]

◆大阪金利 [illegible]

金銀價

◆京城市中金銀價 [illegible]

◆東京金銀價 [illegible]

對外爲替

◆金買入價 [illegible]

鱈油粕·麥粉

◆阪神鱈粕 [illegible]

◆阪神鱈油 [illegible]

◆日本麥粉市勢 [illegible]

正米

◆京城正米 [illegible]

◆仁川正米 [illegible]

◆大阪正米標準價 [illegible]

正租

[illegible]

雜穀

◆京城雜穀 [illegible]

◆仁川、雜穀 [illegible]

綿絲布

◆京城綿絲布市勢 [illegible]

滿洲商況

◆大連特產市勢 [illegible]

株式

◆朝取短期 [illegible]

◆實定代引日步 [illegible]

◆朝取短期實買高 [illegible]

◆東京短期 [illegible]

◆大阪短期 [illegible]

◆東京現株 [illegible]

◆東京短期取組 [illegible]

期米

◆朝取期米 [illegible]

◆朝取期米賣買高 [illegible]

◆大阪期米取組 [illegible]

◆大邱期米 [illegible]

◆群山期米 [illegible]

◆釜山期米 [illegible]

◆木浦期米 [illegible]

◆大阪期米 [illegible]

◆東京期米 [illegible]

京城物價 (十四日)

[illegible]

綿絲

◆大阪綿絲 [illegible]

◆日本各地期米 [illegible]

棉花

◆大阪棉花 [illegible]

人絹

◆各地人絹 [illegible]

生絲

◆橫濱生絲 [illegible]

砂糖

◆大阪砂糖 [illegible]

◆東京砂糖 [illegible]